

▶ 내신 기출 국어, 신사고-상편 ◀

1. 문학, 쓰기, 읽기와의 첫 만남

(1)

- ❶ 자화상 (55문제)-----1쪽
- ❷ 최적전 (51문제)-----20쪽

(2)

- ❶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40문제)-----48쪽
- ❷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 (30문제)-----69쪽

2. 상황과 대상에 맞게 표현하기

- (1) 대화의 원리와 언어 예절 (33문제)-----82쪽
- (2) 담화 상황과 문법 요소 (69문제)-----96쪽

3. 삶을 담은 문학, 삶을 담아 쓰기

- (1) 첫사랑 (36문제)-----118쪽
- (2) 돌다리 (46문제)-----133쪽
- (3) 성난 기계 (30문제)-----159쪽
- (4) 상기 (31문제)-----180쪽

4. 교양 있고 사려 깊은 언어생활

(1)

- ❶ 음운의 변동 (63문제)-----201쪽
- ❷ 한글 맞춤법의 원리 (65문제)-----221쪽

◆빠른 전체 정답-----239쪽

◆해설-----242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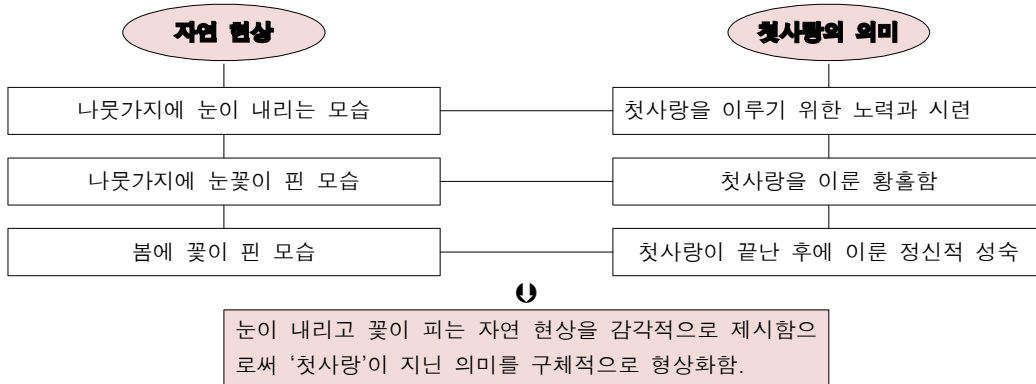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첫사랑” 분석 정리

● 시의 특징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낭만적, 시각적, 비유적, 역설적
어조	대상에 대한 경탄과 예찬
소재	한겨울 나뭇가지에 쌓인 눈
주제	도전과 헌신으로 피워 낸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자연 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함. •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의 모습을 표현함.

1. 이 시의 주된 형상화 방법



2. 이 시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

은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관념인 '눈꽃'을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에 비유하여 표현함. • 원관념인 '꽃'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에 비유하여 표현함.
직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순수한 노력을 '햇숨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하여 폭신하고 따스한 눈의 이미지를 형상화함.
의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이 나뭇가지에 쌓이는 모습을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으로 표현함. • 눈이 나뭇가지에 내려앉는 모습을 두드려 보는 것, 춤추는 것, 미끄러지는 것으로 표현함.

작품 연구 ▶ 표현상의 특징

의인법	'눈'을 사랑을 이루려는 사람처럼 표현함.
설의법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에서 눈의 노력을 부각함.
반복법	'싸그락 싸그락', '난분분 난분분',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에서 시어와 시구를 반복함.
음성 상징어	'싸그락 싸그락'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눈이 내려 쌓이는 소리를 나타냄.
직유법	'햇솨 같은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을 햇솨에 비유하여 표현함.
은유법	눈꽃(원관념)을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보조 관념)'이라고 표현함.

작품 연구 ▶ 역설적 표현



“첫사랑” 드라마 분석

1. 이 시의 제목인 '첫사랑'과 관련지어 다음 시구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시구	첫사랑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시련
햇솨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첫사랑을 위한 헌신의 과정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첫사랑을 이룸.
한 번 덴 자리	첫사랑의 고통(아픔)의 흔적

2. 다음 시구를 낭독해 보고,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	<p style="text-align: center;"><u>운율을 형성하는 요소</u></p> 이 시에는 '싸그락 싸그락'과 '난분분 난분분'과 같은 시어의 반복과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과 같은 시구의 반복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시어나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	---------------------------------------------------------------------------------------------------------------------------------------------------------------

3-(1) 첫사랑 [이론편]

3. 감각적 이미지가 잘 드러난 시구를 찾아 이미지의 종류에 따라 분류해 보고, 그 효과를 말해 보자.

이미지	시구	효과
시각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눈이 내리는 모습(눈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 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춤을 추는 것으로 표현하여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음.
청각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눈이 내리는 소리(눈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 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를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음.
촉각	한 번 덴 자리	눈꽃이 피었던 자리(첫사랑의 아픔과 고통)를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음.

4. 다음 시구에 드러난 표현 방식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화자가 드러내고자 한 함축적 의미를 알아보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표현 방식	함축적 의미
① 은유법이 나타남. ② 표면적으로 모순이 되는 '아름다운'과 '상처'를 병치하는 역설법이 나타남.	① 봄에 피어난 꽃을 의미함. ② 첫사랑의 아픔을 겪고 난 후의 정신적 성숙과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의미함.

5. '가시리'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화자의 정서는 어떠한가?

→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에 대한 원망과 슬픔을 드러내다가 이내 체념하지만 '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함.

• 운율이 느껴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 '3음보의 율격, 시구('가시리잇고')의 반복, 후렴구('위 증즐가 대평성대(太平盛代)')의 반복, 'a-a-b-a('가시리 가시리잇고 / 리고 가시리잇고')'의 구조 등을 통해 운율이 느껴짐.

• 이 작품에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는 무엇인가?

→ '가시리잇고'라는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이별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강조함. '위 증즐가 대평성대(太平盛代)'라는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임금에 대한 송축의 내용을 전달함.

“첫사랑” 문장 분석

「」: 눈이 나뭇가지에 내려 눈꽃을 피우는 상황을 의인화함.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사랑을 이루려는 대상 사랑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주체 사랑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함.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눈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을 음성 상징어로 형상화함.

난분분¹ 난분분 춤추었겠지.

눈이 내리는 모습을 춤추는 것으로 표현함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눈꽃을 피우기 위한 수많은 도전과 실패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첫사랑의 순간적 속성

햇숨²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순수한 마음 헌신적인 태도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

▶ 39

눈의 헌신과 노력으로 피워 낸 눈꽃, 첫사랑이 이루어진 기쁨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텐 자리에

눈이 녹는 계절 눈꽃이 피었던 자리, 첫사랑의 아픈 경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봄에 꽃이 핀 모습, 첫사랑의 아픔을 겪고 난 후의 정신적 성숙과 성숙한 사랑

목적 노트

"기억나는 모든 것을 떠올려 보고 설명하고 써보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짜그락 짜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숨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향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댄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 고재중, 「첫사랑」

속지고등학교 (경기)

1.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자연 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 ㉢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 공간의 대비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속지고등학교 (경기)

2. <보기1>을 읽고 <보기2>에서 위 시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시인은 시어, 화자, 운율, 심상 등의 구성요소와 다양한 표현방법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한다. 함축적 의미를 담아 낱 시어를 선택하고, 그 시어를 배열하여 운율을 만들어 낸다. 또한 비유나 상징 등의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심상을 구체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다. 이렇게 각 구성요소들과 작품의 주제가 마치 하나의 몸처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완성된 한 편의 시는 독자에게 미적 감동을 전해 준다.

<보기2>

㉠ 심상	위 시에 드러난 심상을 말해 보고, 이와 관련된 시구를 찾아보자.
㉡ 운율	위 시에서 운율이 두드러진 부분을 찾고, 그 효과를 말해 보자.
㉢ 표현법	시구에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과 시구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해 보자.
↓	
㉣ 주제와의 관련성	위 시의 주제를 파악해 보고, 시의 구성 요소가 주제의 형상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자.

- ㉠ ㉠ : '짜그락 짜그락 두드려 보았겠지'에서 눈이 내리는 소리가 표현되고 있어 청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 ㉡ ㉡ :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이라는 유사한 시어, '~겠지'라는 종결 어미의 반복이 운율감을 느끼게 한다.
- ㉢ ㉢ : '햇숨 같은 마음'에서 봄을 기다리는 화자의 순수한 마음을 '햇숨'에 비유하여 의미를 강조했다.
- ㉣ ㉣ : '봄꽃'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첫사랑을 겪고 난 후에 도달한 정신적 성숙의 의미를 드러냈다.
- ㉤ ㉤ : 위 시의 구성 요소가 '인내와 헌신으로 이뤄낸 사랑의 결실'이라는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속지고등학교 (경기)

3. 위 시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꽃을 나뭇가지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시련을 의미한다.
- ㉡ ㉡ : 봄에 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 : 눈꽃이 나뭇가지에 오래도록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 ㉣ ㉣ : 눈이 녹은 자리에 피워낸 봄꽃의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 ㉤ ㉤ :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 나뭇가지 위로 새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다.

비전고등학교 (경기)

4. 위 시의 제목인 '첫사랑'과 관련지어 ㉠의 함축적 의미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살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덴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 고재종, 「첫사랑」

신도고등학교 (부산)

5. 이 작품을 서정 갈래로 볼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시인의 대리인인 화자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 동일하거나 유사한 말을 반복하여 운율감이 느끼고 있다.
- ㉢ 작가가 자신의 정서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비유와 상징 등의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 추상적인 대상을 감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형상으로 그려내고 있다.

신도고등학교 (부산)

6. ㉠~㉤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사랑을 이루기 위한 눈의 노력
- ㉡ ㉡ : 첫사랑은 쉽게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암시
- ㉢ ㉢ :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순수한 마음
- ㉣ ㉣ : 첫사랑이 이루어진 기쁨
- ㉤ ㉤ : 첫사랑의 아픔

자양고등학교 (서울)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유사한 시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감각적 심상을 표현하고 있다.
- ㉣ 의문문 형식을 사용하여 절제된 감정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 ㉤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적 대상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자양고등학교 (서울)

8. 윗글을 읽고 느낀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 ㉠ 수많은 인내와 시련을 통해서 정신적 성숙을 얻을 수 있어.
- ㉡ 불가능한 일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심정이 잘 드러나 있어.
- ㉢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려는 노력을 통해 공동의 성취를 이룰 수 있어.
- ㉣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워.
- ㉤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어.

“돌다리” 문학 명칭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성격	사실적, 비판적, 교훈적
배경	시간: 일제 강점기, 공간: 농촌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과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		
특징	①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남 ② 상징적 소재를 통해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대립이 드러남 ③ 대조적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 사건을 전개함 ④ 대화와 요약적 제시를 통해 내용이 전개됨		

1 ‘돌다리’의 구성

발단	창섭은 누이가 의사의 오진으로 죽자 의전에 진학해 의사가 됨. 창섭은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땅을 팔자는 제안을 하러 고향에 옴.
전개	창섭은 고향으로 들어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과 돌다리를 고치고 있는 아버지와 마주침.
위기	창섭은 아버지께 땅을 팔자는 제안을 하며 땅을 판 돈으로 병원을 확장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된다는 것과 부모님은 서울 집에 모시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함.
결정	아버지는 창섭의 제안을 거절하고 땅은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역설함. 창섭은 땅에 대한 아버지의 확고한 신념을 다시금 깨달음.
결말	창섭은 아버지가 고쳐 놓은 돌다리를 지나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다음 날 아버지는 고쳐 놓은 돌다리에서 앞으로는 땅을 지키며 살 것을 다짐함.

2 ‘돌다리’의 인물 분석

(1) 주요 인물

아버지	일생 농사만 지어온 농부. 땅에 대해 강한 애착심을 지니고 있음. 물질적 가치보다 전통적 가치를 소중히 여김.
어머니	아들, 손자와 함께 살기를 바라는 평범하고 소박한 농촌의 여성
창섭	서울에 사는 의사로, 병원을 확장하여 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음. 물질 지향적인 가치관을 지님.

(2) 아버지와 아들의 가치관 비교

	아버지	아들(창섭)
직업	농부	의사
사는 곳	시골(철원)	도시(서울)
가치관	• 전통적 가치 • 정신적 가치 • 내면적 가치 • 비합리적 가치 • 본질적 가치	• 근대적 가치 • 물질적 가치 • 외면적 가치 • 합리적 가치 • 수단적 가치

④ 작품 연구 ▶ 아버지와 창섭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태도

창섭이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열거하며 계획을 제시하는 부분

-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전달함.
- 창섭의 감정이나 말투가 드러나지 않음.

아버지가 땅을 팔지 않겠다는 결심과 이유를 제시하는 부분

- 대화로 내용을 제시함.
- 아버지의 감정이나 말투가 드러남.

서술자는 땅을 만물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옹호한다고 볼 수 있음.

④ 작품 연구 ▶ 결말의 의미

'땅'을 둘러싸고 아버지와 창섭이 갈등을 겪지만 창섭은 아버지의 생각을 따르고 서울로 돌아가며, 아버지는 천리에 순응하며 살겠다고 다짐함.

땅의 가치를 되새기고 물질 만능 주의를 비판함.

④ 작품 연구 ▶ 창섭의 깨달음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위(本位)였던 것을 ~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창섭은 자신의 생각이 아버지의 땅에 대한 신념과 애착을 고려하지 못한 것임을 깨달음.

④ 작품 연구 ▶ '땅을 둘러싼 아버지와 창섭의 갈등'

창섭	아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땅을 물질적 대상으로 봄. • 땅을 금전적 가치로 봄. • 땅을 실용성의 측면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땅을 천지만물의 근거로 봄. • 땅을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것으로 여김.
<p>가치관의 차이</p> <p>창섭과 아버지의 세계가 결별함.</p>	

④ 작품 연구 ▶ 돌다리에 담겨 있는 가족의 역사와 추억

- 창섭의 조부께서 돌다리를 놓으심.
- 창섭의 증조부 산소의 상돌을 돌다리로 건너다 모심.
- 아버지가 글을 배우기 위해 돌다리를 건너서 다님.
- 어머니가 시집을 때 가마를 타고 돌다리를 건너음.
- 창섭이 돌다리에서 고기를 잡음.
- 창섭이 서울로 공부하려 갈 때 돌다리를 건넌.
- 아버지는 죽으면 돌다리로 건너다 묻히길 원함.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겨 있음.

④ 작품 연구 ▶ 나무다리과 돌다리

나무다리

- 돌다리보다 만들기 쉬움.
- 다리는 건널 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담겨 있음.
- 불안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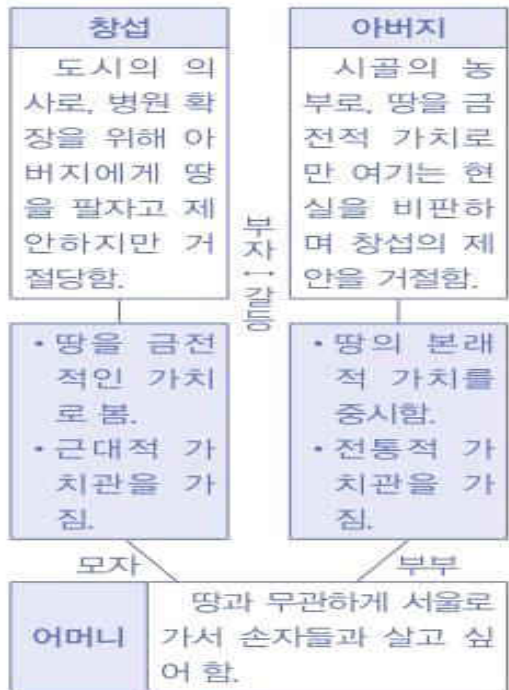
근대적 가치관을 상징함.

돌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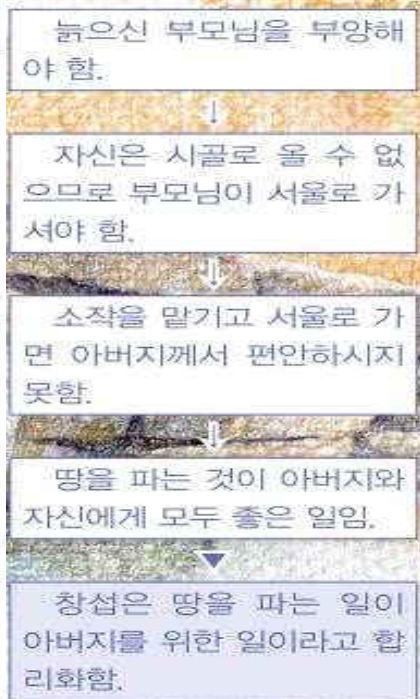
- 만들기 어려움.
-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겨 있음.
-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음.

전통적 가치관을 상징함.

④ 작품 연구 ▶ 등장인물의 성격과 관계



④ 작품 연구 ▶ 땅을 팔고자 하는 창섭의 합리화 과정



🔍 작품 연구 ▶ 땅을 대하는 인물의 관점

창섭

땅을 팔아 병원 확장을 위한 돈을 마련하고자 함.

땅을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며, 땅의 금전적 가치를 중시함.

아버지

논배미를 바로잡고, 밭에 담을 두르고, 개울에 독막이하는 일에 돈을 사용함.

땅을 가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땅의 본래적 가치를 중시함.

🔍 작품 연구 ▶ 아버지가 '땅'을 늘리지 못한 이유

- 곡식값보다 다른 물가가 높아짐.
 - 아들의 유학이 부담이 됨.
 - 땅을 늘리는 것보다 기름지게 하는 것을 중요시함.
 - 남은 돈을 마을의 땅을 위해 사용함.
- ▶ 밭을 하루같이도 늘리지 못하였으나 누구의 눈에나 탐스러운 땅을 이룸.

“돌다리”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

1. 이 소설의 내용을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정리하며 줄거리를 파악해 보자.

창섭이 고향에 온 날	
오전	샘말로 오는 길 창섭은 공동묘지를 보며 의사의 오진으로 죽은 누이를 떠올리고, 잘 관리된 논과 밭을 보며 근검한 아버지를 생각한다.
	샘말 동구 마을 사람들과 돌다리를 고치고 있는 아버지를 만난다.
점심	고향 집 다리 고치는 사람들의 점심 준비에 바쁜 어머니는 손자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한다. 창섭은 아버지에게 병원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땅을 팔자고 설득하지만, 아버지는 대대로 내려온 땅을 팔 수 없다고 거절한다.
오후	고향 집, 돌다리 창섭은 아버지와 자기의 세계가 격리되는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고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로 돌아가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외롭고 불안한 심정으로 바라본다. 저녁이 되어도 잠들지 못한 아버지는 백낙천의 시를 떠올린다.
다음 날	
오전	돌다리 아버지는 고친 돌다리에서 양치와 세수를 하며 천리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3-(2) 돌다리 [이론편]

2. 이 소설의 등장인물을 알아보자.

	아버지	창섭
직업	농부	의사
사는 곳	시골(철원)	도시(서울)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검(勤儉)한 생활 태도를 지녔음. •땅을 삶의 터전으로 보고, 땅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땅을 소중히 여김. •땅을 금전적 가치로 여기는 세태를 비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냉정하고 논리적임. •병원을 경영하며 이익을 추구함. •땅을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여김.

3. ‘나무다리’와 ‘돌다리’의 특징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파악하고, 각각의 상징적 의미를 이야기해 보자.

	나무다리	돌다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다리보다 만들기 쉬움. •불안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들기 어려움.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음.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겨 있음.
상징적 의미	근대적 사고와 가치	전통적 사고와 가치

4. 창섭이 아버지를 찾아온 목적을 고려하여 아버지와 창섭이 갈등하는 까닭을 써 보자.
→ 창섭은 병원 확장을 위해 고양의 땅을 팔자고 아버지에게 제안하지만, 아버지는 대대로 내려온 땅을 소중히 여겨 팔 수 없다고 거절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다.

5. 아버지와 창섭의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자.

아버지의 가치관	창섭의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땅의 본래적 가치를 중시함. •전통적 가치관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땅의 금전적 가치를 중시함. •근대적 가치관을 가짐.

6. ‘보기’를 참고하여 아버지를 둘러싸고 있는 생활 환경의 변화를 이해해 보자.

보기

이 소설이 창작되고 발표된 시기는 일제 강점기로, 이 시기에 우리 사회는 급격하고 파행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도시에는 근대적인 서양 건축물들이 들어섰고, 일본 문화와 서양 문화가 밀려 들어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익혀야 한다는 사고가 나타났으며, 고향의 집과 땅 등이 도구적 대상이나 교환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 이 시기는 전통적 사고와 가치관이 퇴조하고 근대적 사고와 가치관이 자리 잡아 가는 시대의 변화를 겪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땅이 대대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팔아 버릴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3-(2) 돌다리 [이론편]

7.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 및 아버지와 창섭의 갈등을 참고하여 작가가 이 작품을 쓴 의도를 생각해 보자.

→ 작가는 ‘땅’에 대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창섭의 갈등을 통해, 금전적인 가치만을 중시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관(물질 만능 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땅의 본래적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자 이 작품을 쓴 것이다.

8. 다음 항목을 고려하여 이 소설에서 서술자의 역할을 알아보자.

서술자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input type="checkbox"/>	서술자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다.	✓
서술자는 관찰한 것만을 전달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서술자는 등장인물의 심리 등 모든 것을 파악하여 전달하고 있다.	✓

→ 이 소설은 전지적 서술자를 통해 사건뿐만 아니라 창섭, 아버지, 어머니 등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까지도 전달하고 있다.

“돌다리” 읽기 질문 목록

1. 아버지가 생각하는 ‘천리(天理)’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아버지는 자연의 이치는 한결같으므로 거기에 순응하여 매사에 조심하고 보살피며 사는 것을 천리라고 생각한다.

2. 아버지가 백낙천의 시를 떠올린 까닭을 추측해 보자.

→ 아버지가 백낙천의 시에 나오는 늙은 제비가 자신의 모습과 처지를 닮았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3. 아버지가 자신이 죽을 때가 되면 땅을 다 팔겠다고 한 까닭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땅의 가치를 알고 땅을 소중하게 여기며 가꿀 제대로 된 농군에게 팔아서 그가 땅을 계속 돌보길 바라기 때문이다.

4. 아버지가 비판하고 있는 지주들의 태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땅을 가꾸고 기르지게 하지 않고 야박하게 굴며 땅을 홀대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5. 아버지가 땅을 팔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땅은 경제적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6. 창섭이 땅을 팔자고 아버지에게 재안할 명분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 창섭은 늙으신 부모님의 봉양, 즉 부모님의 말년을 편안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땅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7. 아버지가 재산을 늘리지 못한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 곡식값보다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고, 아들의 유학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부담이었으며, 논밭을 늘리는 것보다 물려받은 것을 더 중요시했을 뿐만 아니라 남은 돈을 마을의 땅을 가꾸는데 사용했기 때문이다.

8. 창섭이 의사가 되려고 한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누이가 허망하게 죽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본인이 유능한 의사가 되고자 한 것이다.

9. ‘창옥아’라고 부르는 창섭의 마음이 어떠할지 짐작해 보자.

→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이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창섭은 샘말에 들어서자 동구에서 이내 아버지를 뵈일 수가 있었다. 아버지는, 가에는 살얼음이 잡힌 찬물에 무릎까지 걷고 들어서서 동네 사람들을 축추겨 돌다리를 고치고 계시었다.

“어떻게 잡재기 오느냐?”

“네. 좀 급히 여쭙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먼저 들어가 있거라.”

동네 사람 수십 명이 쇠고삐 두 기장은 흘러 내려간 다릿돌을 동아줄에 얹어 끌어올리고 있었다. 개울은 동네 북판을 흐르고 있어 아래위로 징검다리는 서너 군데나 놓였으나 하룻밤 비에도 일쭉 넘치어 모두 이 큰 돌다리로 통행하던 것이었다. 창섭은 어려서 아버지께 이 큰 돌다리의 내력을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

“너이 증조부님 돌아가시어서다. 산소에 상들을 해 오시는데 징검다리로야 건네올 수가 있니? 그래 너이 조부님께서 다리부터 이렇게 넓구 튼튼한 돌루 노신 거란다.”

그 후 오륙십 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몇 해 전 어느 장마엔 어찌 된 셈인지 가운데 제일 큰 장이 내려앉아 떠내려갔던 것이다. 두께가 한 자는 실하고 폭이 여섯 자, 길이는 열 자가 넘는 자연석 그대로라 여간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대일 염두(念頭)14부터 나지 못하였다. 더구나 불과 수십 보 이내에 면(面)의 보조를 얻어 난간까지 달린 한다면 ㉠나무다리가 놓인 뒤의 일이라 이 ㉡돌다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 버린 채 던져져 있던 것이었다.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다리 고치는 사람들 점심을 짓노라고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여편네들과 허둥거리고 계시었다.

“웬일인데 어찌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오늘루 가야겠어서 아무도 안 데리구 왔습니다.”

“오늘루 갈 걸 뭘 해 오누?”

“인전 어머니서꺼 서울로 모셔 갈 채빌 허러 왔따우.”

“서울루! 제발 아이들허구 한데서 살아 봤음 원이 없겠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것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채견채견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한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나거나 입원실이 부족하여 오는 환자의 삼분지 일밖에 수용 못 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삼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삼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 층에 수도, 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얇한 것, 얇하

기는 하나 삼만 이천 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일만 오천 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준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삼만 이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뿜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답허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참 놀 제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여남은 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허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다는? 너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체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니 산소에 상들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천장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려 댕겼다.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지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루 본 밭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루 작만(作滿)허신 논논이야. 돈 있다가 어디가 ㉢느르지는 같은 게 있구, ㉣독시장밭 같은 걸 사? 느르지는 독에 선 느티나무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구, 저 사랑 마당에 ㉤은행나무는 아버지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銅像)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군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 팔구 허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딴으며 나라가 어딴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가 땅이 뭔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변리(邊利)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都是) 생각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엔 뵈지 않드라.”

“…….”

“네가 뉘 덕으루 오늘 의사가 됐니? 내 덕인 줄만 아느냐? 내가 땅 없이 뭘루? 밭에 가 절허구 논에 가 절허야 쏜다. 자고로 하늘 하늘 허나 하늘의 덕 이 땅을 통허지 않군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아니? 땅을 파는 건 그게 하늘을 파나 다름없는 거다.”

“…….”

“땅을 밟구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들 여기지? 땅처럼 응과(應果)가 분명헌 게 무어냐?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 두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겐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헌 보답을 주시는 거다.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

들, 땅은 작인들한테나 맡겨 버리구, 떡 도회지에 가 있어 소출(所出)은 팔어다 모다 도회지에 낭비해 버리구, 땅 가꾸는 덴 단돈 일 원을 벌벌 떨구, 땅으루 살며 땅에 야박한 농은 자식으로 치면 후례자식 셈이야. 땅이 말을 할 줄 알아 봐라?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해마다 걷어만 가구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아냐? 독이 떠나가니 아냐? 거름 한 번을 제대로 넣냐? 정 급허게 돼 작인이 우는소리나 해야 요즘 너희 신의(新醫)들 주사침 놓듯, 애꾸진 금비(金肥)만 갖다 털어 넣지. 그렇게 땅을 흘델 허군 인제 죽어서 땅이 무서서 어디루들 갈 텐구!”

㉠창섭은 입이 열려 버리었다. 손만 부비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위(本位)였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기도 말을 계속하였다.

“너루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허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닐 줄두 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린 못쓰는 거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仁術)이라지 않니? 매살 순탄허게 진실허게 해라.”

“.....”

“네가 가업을 이어 나가지 않는대군 탄허지 않겠다. 넌 너루서 발전할 길을 열었구, 그게 또 모리지배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活人)허는 인술이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허니? 다만 삼사 대 집안에서 공들여 이룩해 논 전장(田莊)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저옥 애석헌 심사가 없달 순 없구.....”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두 이제두 말했지만 너두 문서 쪽만 쥐구 서울 앓어 지주 노릇만 허게? 그따위 지주허구 작인 틈에서 땅들만 얼마 골른지 아냐? 안 된다. 팔 테다. 나 죽을 임시(臨時)엔 다 팔 테다.

-이태준, <돌다리>

유신고등학교 (경기)

1. ㉠~㉣ 중 문맥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유신고등학교 (경기)

2.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부 상황과 관련 없이 떠오르는 인물의 의식을 기술하였다.
- ② 작중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내면과 경험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등장인물의 심리를 알고 있는 작품 밖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펼쳐진 사건을 나란히 배치하고 있다.

유신고등학교 (경기)

3. 윗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전통적 가치관을 상징한다.
- ② ㉡에는 다리는 건널 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 ③ ㉠은 ㉡보다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는다.
- ④ ㉡은 ㉠보다 만들기 쉽다.
- ⑤ ㉡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에서 밀려나 있다.

유신고등학교 (경기)

4. 윗글의 등장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창섭의 아버지가 마을에 돌다리를 처음 놓으셨다.
- ② 창섭은 천자문을 배우기 위해 돌다리를 건너 다녔다.
- ③ 창섭의 아버지는 돌다리도 인정을 갖고 대하고 있다.
- ④ 창섭의 어머니는 시집올 때 걸어서 돌다리를 건너왔다.
- ⑤ 창섭의 할아버지 산소의 상돌을 돌다리로 건너다 모셨다.

유신고등학교 (경기)

5.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면종복배(面從腹背)
- ② 점입가경(漸入佳境)
- ③ 적반하장(賊反荷杖)
- ④ 유구무언(有口無言)
- ⑤ 소탐대실(小貪大失)

유신고등학교 (경기)

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땅을 천지만물의 근거로 보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 ② 사람은 죽어서 땅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③ 하늘보다 땅이 더 응과가 분명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 ④ 가업인 농사 짓는 일이 후대에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지니고 있다.
- ⑤ 땅에 거름 대신 화학 비료를 넣으려는 소작인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정거장에서 샘말 십 리 길을 내려오노라면 반이 될락 말락 한 데서부터 샘말 동네보다는 그 건너편 산기슭에 놓인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뜨인다.

창섭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까지 바라보았다.

봄에 올 때 보면, 진달래가 불꽃듯 피어 올라가는 야산이다. 지금은 단풍철도 지나고 누르테테한 가닥나무들만 묘지를 둘러, 듣지 않아도 적막한 버스럭 소리만 울릴 것 같았다. 어느 것이라고 집어낼 수는 없어도, 창옥의 무덤이 어디쯤이라고는 짐작이 된다. 창섭은 마음으로 '창옥아' 불러 보며 묵례(默禮)를 보냈다.

(나)

창섭의 아버지는 근검(勤儉)으로 근방에 소문난 영감이다. 그러나 자기 대에 와서는 밭 하루같이도 늘리지는 못한 것으로도 소문난 영감이다. 곡식값보다는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전대(前代)에는 모르던 아들의 유학이란 것이 큰 부담인데다가,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나를 부자 소린 못 들어도 굶는 단 소린 안 듣고 살도록 물려주시구 가셨다. 드럭드럭 탐내 모아선 뭘 허니, 할아버지께서 쇠똥을 맨손으로 움켜다 넣시던 논, 아버지께서 멧덜을 손수 이룩하신 밭을 더 건 논으로 더 기를진 밭이 되도록, 닭달만 해 가기에도 내겐 벅찬 일일 게다.”

하고 절용(節用)해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는 품을 몇씩 들여서까지 비뚤은 논배미를 바로잡기, 밭에 돌을 추려 바람맞이로 담을 두르기, 개울엔 독막이하기, 그러다가 아들이, 의사가 된 후로는, 아들 학비로 쓰던 뭇까지 들여서 동네 길들은 물론, 읍 길과 정거장 길까지 닦아 놓았다.

(다)

‘아버지께선 내년이 환갑이시다! 어머니께선 겨울이면 해마다 기침이 도지신다. 진작부터 내가 모셔야 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시골로 올 순 없고, 천생 부모님이 서울로 가셔야 한다. 한 동네서도 땅을 당신만치 못 거들 사람에겐 소작을 주지 않으셨다. 땅 전부를 소작을 내어 맡기고는 서울 가 편안히 계실 날이 하루도 없으실 게다. 아버님의 말년을 편안히 해 드리기 위해서도 땅은 전부 없애 버릴 필요가 있는 거다!’

창섭은 샘말에 들어서자 동구에서 이내 아버지를 뵈일 수가 있었다. 아버지는, 가에는 살얼음이 잡힌 찬물에 무릎까지 견고 들어서서 동네 사람들을 축추겨 돌다리를 고치고 계시었다.

“어떻게 갑재기 오느냐?”

“네. 좀 급히 여쭙 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라)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침 놀 제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여남은 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

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허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다든? 너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체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니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천잘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러 댕겼다.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루 본 밭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루 작만(作滿)허신 논들이야. 돈 있다가 어디 가 느르지는 같은 게 있구, 독시장 밭 같은 걸 사? 느르지는 독에 선 느리나문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구, 저 사랑 마당에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銅像)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군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 팔구 허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딴으며 나라가 어딴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가 땅이 뭇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변리(邊利)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都是) 생각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엔 뵈지 않드라.”

㉡“…….”

“네가 뉘 덕으루 오늘 의사가 됐니? 내 덕인 줄만 아느냐? 내가 땅 없이 뭇루? 밭에 가 절하구 논에 가 절해야 쓴다. 자고로 하늘 하늘 허나 하늘의 덕이 땅을 통허지 않군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아니? 땅을 파는 건 그게 하늘을 파나 다름없는 거다.”

“…….”

“땅을 밟구 다니니까 땅을 우섭게들 여기지? ㉢땅처럼 응과(應果)가 분명한 게 무어냐?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두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겐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헌 보답을 주시는 거다.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은 작인들한테나 맡겨 버리구, 떡 도회지에 가 얹어 소출(所出)은 팔어다 모다 ㉣도회지에 낭비해 버리구, 땅 가꾸는 덴 단돈 일 원을 벌벌 떨구, 땅으루 살며 땅에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례자식 셈이야. 땅이 말을 할 줄 알아 봐라?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해마다 견어만 가구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아냐? 독이 떠나가니 아냐? ㉤거름 한 번을 제대로 넣냐? 정 급허게 돼 작인이 우는소리나 해야 요즘 너희 신의(新醫)들 ㉥주사침 놓듯, 애꾸진 ㉦금비(金肥)만 갖다 털어 넣지. 그렇게 땅을 흘델 허군 인제 죽어서 땅이 무서서 어디루들 갈 텐구!”

(마)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두 이제두 말했지만 너두

문서 쪽만 쥐구 서울 얹어 ㉔지주 노릇만 허게? 그따위 지주허구 작인 틈에서 땅들만 얼말 골른지 아니? 안 된다. 팔 테다. 나 죽을 임시(臨時)엔 다 팔 테다. 돈에 팔 줄 아니? ㉕사람헌테 팔 테다. 건너 ㉖용문이는 우리 느르지는 같은 건 한 해만 부쳐 보구 죽어두 농군으로 태낭은 걸 한허지 않겠다구 했다. 독시장발을 내놓는다구 해 바라, ㉗문보나 ㉘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왔드라두 집을 팔아 살려구 덤빌 게다. 그런 사람들이 땅님자 안 되구 누가 돼야 옳으나? 그러니 아주 말이 난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목 내겠니? 몇몇 해구 그 땅 소출을 팔아 연년이 값어 나가게 헐 테니 너두 땅값을랑 그렇게 받아 갈 줄 미리 알구 있거라. 그리구 네 모가 먼저 가면 내가 문을 거구,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네 모만은 내가 서울로 그때 다려가렴. 난 샘말서 이렇게 야인(野人)으로나 죄 없는 밥을 먹다 야인인 채 문힐 걸 흡족히 여긴다.”

<중략>

아버지는 종일 개울에서 허덕였으나 저녁에 잠도 달게 오지 않았다. 젊어서 서당에서 읽던 ㉙백낙천(白樂天)의 시가 다 생각이 났다.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 지은 노래였다. 제 배 속이 고픈 것은 참아 가며 입에 얻어 물은 것은 새끼들부터 먹여 길렀으나, 새끼들은 자라서 나래에 힘을 얻자 어디로인지 저희 좋을 대로 다 날아가 버리어, 야위고 늙은 어버이 제비 한 쌍만 가을바람 소슬한 추녀 끝에 쭈그리고 앉았는 광경을 묘사하였고, 나중에는 그 늙은 어버이 제비들을 가리켜, 새끼들만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새끼 적에 역시 그러했음도 깨달으라는 풍자의 시였다.

-이태준, '돌다리'

강동고등학교 (서울)

7.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구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군
- ② '돌다리'는 등장 인물들의 가족사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어
- ③ 변동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을 비판하고 있군
- ④ 땅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의 인식이 현재의 세태를 비판하는 근거야
- ⑤ 자본주의의 경제적 가치관이 부자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라 하겠군

강동고등학교 (서울)

8. 이 글에 나타난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치관이 다른 두 인물 간의 갈등
- ② 한 개인의 욕망과 내면 의식 간의 갈등
- ③ 서로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간의 갈등
- ④ 개인의 욕구와 이를 제약하는 사회 제도와의 갈등
- ⑤ 사회의 세속적인 가치와 종교적인 윤리 의식 간의 갈등

강동고등학교 (서울)

9. 이 소설을 읽은 후 독후감을 쓰려고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복원 공사로 제 모습을 갖게 된 '광화문' 소개
- ② 전통 '옹기'를 고집하는 '독 짓는 늙은이' 예시
- ③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인물에 대한 비평
- ④ 의료 보험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 활동과 서비스 체계 개편 제시
- ⑤ 금전적 가치와 경제성,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현대인의 모습 제시

강동고등학교 (서울)

10. ㉚.....에 생략된 말을 아들의 위치에서 재구성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버지, 시골에 땅은 고작 삼천 원의 이익이 생길까 말까 한데 왜 그냥 놓아두시나요?
- ② 옛날에는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살았으니 땅이 무척 중요했지만 지금은 어디 그런가요?
- ③ 늙으신 아버지께서 힘들게 농사나 짓고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욕해요
- ④ 손주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손주와 함께 이 곳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 ⑤ 아버지 말씀이 타당합니다. 제가 졌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강동고등학교 (서울)

11. 다음 중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은?

- ① ㉑ 나무다리
- ② ㉒ 도회지
- ③ ㉓ 거름
- ④ ㉔ 주사침
- ⑤ ㉕ 금비(金肥)

강동고등학교 (서울)

12. ㉞의 의미에 가장 알맞은 속담을 쓰시오.

“성난 기계” 분석 정리

1. 핵심 정리

- *시대: 1950년대
- *갈래: 단막극, 사실극
- *배경: 현대의 어느 늦가을, 폐 외과 과장실
- *특징: ① 비정한 현대인의 모습을 냉소적으로 묘사함.
 ② 작품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립적인 양상을 보임.
 ③ 물질 문명을 비판하고 휴머니즘을 지향함.

- *구성
 - 발단-인옥이 수술을 해 달라고 간청함.
 - 전개-회기가 수술을 거절하고 돌려보냄.
 - 절정-상현이 찾아와서 부인의 수술을 반대함.
 - 반전-분노한 회기가 수술을 결심함.
 - 결말-인옥에게 속달 우편을 보내게 함.

*주제: 현대인의 인간성 상실 비판과 그 회복

2 '성난 기계'의 구성

발단	폐결핵에 걸린 인옥이 외과 의사인 회기를 찾아와 수술을 해 달라고 애원함.
전개	회기는 수술 결과에 자신이 없다며 인옥의 요청을 거절함.
절정	회기가 아내 인옥의 수술을 하지 말아달라는 상현과 대립함.
하강	회기는 상현의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태도에 분노를 느낌.
대단원	회기가 급속을 시켜 인옥에게 수술을 받으러 오라는 편지를 보내게 함.

3 '성난 기계'의 갈등 양상

회기 ↔ 인옥	살기 위해 수술을 요청하는 인옥과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절하는 회기의 갈등
회기 ↔ 상현	경제적 이유와 아내의 부정에 대한 의심으로 인옥의 수술을 반대하는 상현과 비인간적인 상현의 태도에 분노하는 회기의 갈등

4 소재의 상징적 의미

"답배는 포장도 중요하지만 알맹이가 좋아야지"			>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전달함.
↓				
답배: 인간	포장: 겉모습	알맹이: 내면(인간성)		

5 제목의 의미

기계	인간미를 상실한 채 인옥의 호소를 외면하는 회기의 비인간적인 면을 나타냄.
성난 기계	기계 같던 회기가 인옥을 살려야겠다며 인간적인 면모를 보임.

제목 '성난 기계'는 상실된 인간성의 회복을 상징함.

④ 작품 연구 ▶ 상현이 인옥의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

- 수술의 성공 가능성이 낮고, 비용이 비쌌.
- 인옥이 건강을 회복하면 지금보다 더 자주 놀아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여김.

인옥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

④ 작품 연구 ▶ 회기의 별명

머리는 사람이고 손은 기계인 이십 세기 스프링크스

긍정적 의미	뛰어난 수술 능력을 갖추.
부정적 의미	괴기한 이미지, 차갑고 냉정함.

④ 작품 연구 ▶ 회기의 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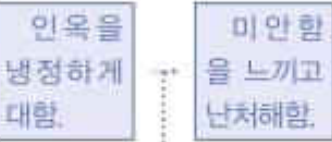
견집을 수 없는 허무감과 자책심

④ 작품 연구 ▶ 구절의 의미

"일맹이는 어찌 ~ 꾸미라는 말이군요....."

수술을 통해 근본적 치료는 해 주지 않으면서, 약을 처방해 임시방편으로 삼으려는 회기에 대한 인옥의 비판

④ 작품 연구 ▶ 회기의 심적 동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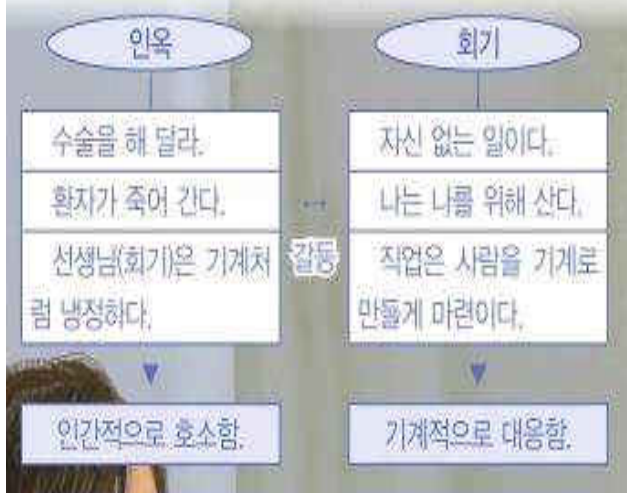
인옥이 수술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함임을 알게 됨.

④ 작품 연구 ▶ 회기가 수술을 거절하는 이유

수술 결과가 나쁠 경우에 받을 원망과 책임감을 의식

수술이 잘못될 경우 환자의 생명을 잃을 수 있으므로, 병이 심각한 인옥을 수술하기를 거절함.

④ 작품 연구 ▶ 인옥과 회기의 갈등



④ 작품 연구 ▶ 회기의 성격

- "(조소하는 태도로) 나는 환자의 생명을 ~ 덕과 마찬가지로....."
- "(냉정하게)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이오."
- "나는 나를 위해서 ~ 사람은 아니니까."

이기적이고 실리를 추구하며 냉정함.

㉔ 작품 연구 ▶ 무대 배경과 인물 묘사

배경
 '방 전체는 청결하다는 장점을 ~ 공기가 떠돌고 있다.'

인물 묘사(양회기)
 '양회기의 흰 피부와 ~ 동시에 발산하고 있다.'

주인공의 냉담한 이미지와 어울리는 배경 설정으로 인물의 성격을 강조하는 효과를 줌.

㉕ 작품 연구 ▶ 구절의 의미

"담배는 포장도 중하지만 알맹이가 좋아야지!"

담배	포장	알맹이
인간	겉모습	내면 (인간성)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전달함.

㉖ 작품 연구 ▶ 대립 구조

전반부
 수술을 해 달라는 인옥의 부탁을 회기가 냉정하게 거절함.
 → 인간성 상실

후반부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는 상현의 태도에 회기가 분노하며, 인옥의 수술을하기로 결정함.
 → 인간성 회복

㉗ 작품 연구 ▶ 인옥의 외양 묘사

- 헝클어진 뿔머리와 찢기 없는 안색
- 힘없이 의자에 앉음.
- 비애보다 신랄적인 절실한 욕망이 감도는 표정

▶ 회기적 간극에 내린 묘사

죽음의 위기에 있으나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

㉘ 작품 연구 ▶ 회기의 태도 변화

생명을 경시하는 상현의 태도에 점차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시함.
 조용하나 위엄 있게 → 뭉클 불쾌감이 솟으며 →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 외치며

회기의 인간성이 점차 회복되어 감.

㉙ 작품 연구 ▶ 상현과 인옥의 관계

- 상현은 인옥이 수술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회기를 찾아옴.
- 상현은 인옥이 수술을 받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술을 반대함.
- 상현은 인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술을 받으려 한다고 생각함.

부부 간의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음.

“성난 기계” 드라마서 읽기

1. 다음 장면을 중심으로 이 희곡의 제목 ‘성난 기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작품의 주제와 관련지어 말해 보자.

회기: 응? (가볍게 웃으며) 이번 환자는 꼭 살려 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군!
 금숙: 왜요?
 회기: (분노를 띠며) 그 친구에게 살해당할 바엔 내가 말아서 살리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아!
 금숙: (흠뻑 쳐다보며) 기계가 노하셨네요…….

→ 제목 ‘성난 기계’는 기계처럼 인간미가 없이 냉정하던 회기가, 아내의 죽음을 방치하는 상현의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모습에 분노하여 인간성을 회복하게 됨을 의미한다.

2. 대사와 행동을 중심으로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보자.

인물	대사와 행동	성격
양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소하는 태도로)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 줌으로써 기쁘게 해 주겠다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은 없소. • (냉정하게)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이요. •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소. ~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그건 너무 심하지 않소 • (외치며)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소……. • (분노를 띠며) 그 친구에게 살해당할 바엔 내가 말아서 살리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기적임. • 냉정함. • 타인의 비인간적인 모습에 분노를 느끼며 인간성을 회복함.
김인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 개비를 스무 개씩 집어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력이 강함. • 가족에게 희생적임. • 삶에 대한 애착을 지니고 있음.
최상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증오심을 억제하며) 미워한들 ~ 그 덕으로 살아왔는데……. • (냉혹하게) 별수 없죠! ~ 막을 수 없으니까. •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 (처음에 지냈던 겸손과 비굴은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참견 마세요! ~ 나 살고 남도 있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능력하고 무책임함. • 이기적이고 비정함.
정금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 별명이 뭇인지 아세요? • (빙그레 웃으며) 선생님, 웬일이세요? • (흠뻑 쳐다보며) 기계가 노하셨네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생각을 숨기지 않고 드러냄.

3. ‘회기’를 중심으로 이 희곡에 나타난 주요 갈등을 정리해 보자.

갈등의 주체		갈등의 내용
회기	↔ 인옥	살기 위해 수술을 해 달라는 인옥과 수술 결과에 자신이 없다며 수술을 거절하는 회기의 갈등
	↔ 상현	수술비가 아까워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는 상현과, 이러한 비인간적인 상현의 태도에 분노하는 회기의 갈등

4. 다음은 이 희곡의 일부를 소설로 바꾸어 쓴 것이다. 이야기의 전달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목하여 희곡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상현이 거칠게 문을 닫고 떠난 뒤 회기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적막한 공기 속에 금숙은 말없이 그런 회기를 주시하고만 있었다.

회기는 방금 전 상현과의 대화를 곱씹었다. 아내 덕에 살고 있으면서도 돈 때문에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다니. 회기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회기는 인육을 살려 내기로 결심했다. 그런 남편이라는 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물론 수술 결과에 자신도 있었다.

“정 간호사! 아까 그 환자에게 속달 우편으로 보내요. 수술을 받고 싶으면 편지 받는 즉시 찾아오라고!”

자신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짓는 금숙을 보며 회기는 수술용 혈액을 충분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그런 회기를 보며 금숙은 빙그레 웃었다.

항목	소설		희곡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인물, 사건, 배경이 있는가?	✓		✓	
서술자가 있는가?	✓			✓
대사와 지시문이 있는가?		✓	✓	

희곡의 특징: 희곡은 무대 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직접 관객에게 대사와 행동(연기)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인물이 겪는 사건이나 갈등, 상황 등을 보여 준다.

“성난 기계” 읽기 질문지

1. ‘이십 세기 스프링크스’라는 별명이 무슨 뜻인지 추측해 보자.

→ 스프링크스의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짐승이듯이 회기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는 일은 기계적이라는 말로, 뛰어난 수술 능력을 갖추었지만 냉정한 회기의 인간성을 꼬집는 별명이다.

2. 인육이 수술받기 간절히 원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 인육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어린 자식들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을 지니고 있어 수술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3. 무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어떠한지 말해 보자.

→ 냉랭하고 음산하다.

4. 금숙이 회기를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까닭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그동안 기계처럼 냉정하고 생각했던 회기가 상현의 행동을 살인이라고 비판하며 태도의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

“성난 기계” 본문 4행

1

회기: (측은해지며) 가시렵니까?

회기의 심리가 변하고 있음.

인옥: 너무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고 금속에게도 목례를 던지며

2

인옥: 괜찮아요……. 수술을 못 맡아 주시겠다는데 억지로 맡길 수는 없으니
까……. (힘없이 문 쪽으로 걸어 나가며) 살아 보겠다는 내가 잘못된 게죠. 남

들은 다 사는데 나만 죽어야 할 까닭은 없으 자랑의 자존적 태도 는 것 같아서 한번 자랑의 자존적 태도 여쭙보 자랑의 자존적 태도 거예

회기: (약간 감동되며) 내 얘기가 좀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인옥의 말에 감지 동요가 일어남 죽어도 인옥의 수술을 거절한 것에 미안함의 느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좋은 약을 소개해 인옥의 수술을 거절한 것에 미안함의 느낌 드릴 테니 인옥의 수술을 거절한 것에 미안함의 느낌 써 보세요.

인옥: (혼잣소리처럼) 알맹이는 어찌 되었든 수술이라는 근본적인 치료 대신 약을 처방하여 임시방편으로 삼는 것 포장만 그럴싸하게 꾸미라는 말이군

3

회기: (냉정하게)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 자신에게 해가 될 일엔 하지 않음. → 이기적인 성격 이오.

인옥: 환자가 죽어 가도 말씀이예요?

회기: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소.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자신의 이익과 이익을 우선시함. → 이기적인 성격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인옥: (안타깝게) 선생님…….

회기: 덱이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피상피상적 논리. → 이기적인 자신의 태도를 옹호함. 마찬가지 이 치지요, 그렇잖아요?

인옥: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회기의 성격이 단적으로 제시됨. 기계처럼…….

4

금속의 경건 시 열거!

금속: (흠뻑 쳐다보며) 기계가 노하셨네요…….

작품의 제목과 관련된 기계와 같은 회기가 인간성을 회복했음을 의미함.

회기: 잔소리 말고, 편지나 어서 써!

5

회기: 좋아! 그럼 속달 우편 인옥을 살리겠다는 회기의 강한 의지가 드러남. 으로 보내요.

인옥을 살리겠다는 회기의 강한 의지가 드러남.

금속: 예? (하며 가까이 온다.)

회기: 수술을 받고 싶으면 편지 받는 즉시 찾아오라고!

회기가 인옥의 수술을 하겠다고 결심함. → 인간성 회복

금속: (놀란 표정으로) 아니, 그렇지만…….

회기의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폐 전문 외과 의사인 양희기는 폐 질환을 앓고 있는 김인옥으로부터 수술을 요청받지만, 병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며 거절한다. 인옥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 한다며 수술을 간청하지만, 희기는 수술 결과가 나쁠 경우에 받을 원망과 책임감을 의식하여 인옥을 냉정하게 대한다.

희기: (무심코 담배를 든 손을 내려다보며 혼잣소리로) 내 손이 기계라고? 음…….

금숙: (채 알아듣지 못한 듯) 예?

희기: (제정신으로 돌아가며) 참, 정 간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냐?

금숙: 뭘 말씀이세요?

희기: 내 손 말이야……. 아까 그 환자가 나더러 기계라고 하던 말…….

금숙: (과장된 표정으로) 정말 그 환자는 보통이 아니던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난 깜짝 놀랐어요.

희기: 왜?

금숙: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라는 듯이 웃으며) 저…… 선생님……. ㅎㅎ…….

희기: 응? 뭐야?

금숙: 선생님 별명이 뭐인지 아세요?

희기: 아니, 내게도 별명이 있냐?

금숙: 그럼요!

희기: 그래 뭔데?

금숙: 머리는 사람이고 손은 기계인 이십 세기 스프링크스!

희기: 이십 세기 스프링크스!

금숙: 옛날 스프링크스는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짐승이었잖아요?

희기: ㉠(쓴웃음을 뽐으며) 스프링크스라…….

금숙: 그러니 아까 그 환자가 하는 말은 선생님의 별명을 알고나 있는 눈치 아니에요?

희기: 내가 스프링크스처럼 괴상하게 생겼냐?

금숙: 원, 선생님두……. 스프링크스의 장점만을 들어서 지은 이름인 걸요…….

[중략 부분의 줄거리] 얼마 후 인옥의 남편인 상현이 희기를 찾아온다. 그는 희기가 인옥의 수술을 거절했다는 말에 안심하면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수술을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아내의 폐 수술을 해 주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한다.

상현: 흥! 내 처가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원하는 줄 아십니까?

희기: 그럼…….

상현: (내뱉듯이) 내 아내는 건강을 회복하면 지금보다 더 자주 놀아날 생각에서예요!

희기: (어이없다는 듯) 원……. 그럴 리가…….

상현: (완강히) 아닙니다. 선생님, 그 여자는 그런 성격입니다. 옛날부터…….

희기: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 부인 때문에 온 식구가 살아가

고 있는 게 아니오?

상현: (혼잣소리로)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희기: 누가 말이오?

상현: ㉡(눈물을 글썽거리며) 아내는 항상 나를 무능하다고 빈정대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런 아내에게 대해서 한 마디 대꾸도 못하는 바보였죠…….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희기: 선생님은 너무 의심이 많으시군.

상현: 내가요? 천만에!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진 않았죠. 도리어 알고도 모르는 척했을 뿐입니다.

희기: (미심쩍게) 내가 알기엔 부인께서는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한사코 고집하는 것을…….

상현: 아닙니다. 그건…….

희기: (조용하나 위엄 있게) 그렇지만, 내버려 두면 부인께서 어떻게 된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상현: (냉혹하게) 별수 없죠! 죽고 사는 건 인력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희기: ㉢(몸을 불쾌감이 솟으며) 아니, 그럼 부인이 죽어도 괜찮단 말이오?

상현: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그대로 두는 게죠. 그 돈이 있으면 나와 어린것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희기: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그건 너무 심하지 않소?

상현: (반항적으로) 심한 건 내 아내죠.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수술을 합니까? 그것도 공으로 한다면 또 모르지만, 돈 쓰고 저 죽고 하면,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선생님! 그러니 나는…….

희기: (외치며)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소…….

(이 말이 떨어지자 금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희기를 쳐다 본다.)

상현: 뭐라구요?

희기: (강하게) 아내가 죽어 가도 내버려 두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상현: (처음에 지냈던 겸손과 비굴은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참견 마세요! 내 처를 내가 죽이건 살리건 무슨 걱정이오! 나 살고 남도 있지! ㉣(불쑥 일어서서 손가방을 쥐며) 아무튼 실례했습니다! (하며 문을 탁 닫고 나가 버린다.)

(희기는 감전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고 금숙은 희기를 주시하고만 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희기: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며) 정 간호사!

금숙: 예?

희기: 아까 그 환자의 주소 알지!

금숙: 예, 접수부를 보면…….

희기: 좋아! 그럼 속달 우편으로 보내요.

금숙: 예? (하며 가까이 온다.)

희기: 수술을 받고 싶으면 편지 받는 즉시 찾아오라고!

금숙: (놀란 표정으로) 아니, 그렇지만…….

희기: (속삭이듯) 자신은 있어! 그 대신 수혈용 혈액을 충

분히 준비할 것을 잊지 마! 알겠어?

금숙: ◎(빙그레 웃으며) 선생님, 웬일이세요?

회기: 응? (가볍게 웃으며) 이번 환자는 꼭 살려 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군!

금숙: 왜요?

회기: (분노를 띠며) 그 친구에게 살해당할 바엔 내가 ㉠말
아선 살리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아!

금숙: (흠뻑 쳐다보며) 기계가 노하셨네요…….

회기: 잔소리 말고, 편지나 어서 써!

금숙: 예! (하며 제자리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회기는 상현이 두고 간 담뱃갑을 발견하자, 담배 한 개
비를 빼더니 물끄러미 바라본다.)

회기: (혼잣소리로) 담배는 포장도 중하지만 알맹이가 좋아
야지!

금숙: (편지를 쓰다 말고) 그 담배만은 진짜겠지요……. 공
장에서 직접 나왔을 테니까…….

회기: 그렇지! (하며ライター 불을 켜다.)

배재고등학교 (서울)

1.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옥’은 ‘회기’의 병명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료를 받았다
- ② ‘금숙’이 말한 ‘회기’의 병명은 외모의 특징으로 지어진 것이다
- ③ ‘상현’은 ‘인숙’의 병이 위중하다는 것을 모른 채 ‘회기’를 만났다
- ④ ‘회기’는 과거에 수술을 하고도 환자를 살리지 못한 경험에 있다
- ⑤ ‘상현’은 ‘인옥’이 수술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회기를 찾아왔다.

배재고등학교 (서울)

2. ㉠~㉢에 대한 연출자의 구체적인 지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자신을 조롱하는 상대에 대한 불쾌감이 드러나도록 하세요
- ② ㉡: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지도록 말 하세요
- ③ ㉢: 순간적인 화를 가까스로 참고 단호하게 내뱉는 어조를 사용하세요
- ④ ㉣: 다른 급한 일이 생각난 듯이 화들짝 놀라는 표정으로 연기하세요
- ⑤ ㉢: 당황스러운 듯이 미소를 지으며 살짝 비꼬는 말투로 대사를 해 주세요

배재고등학교 (서울)

3. 다음을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성난 기계’는 1959년에 발표된 사실주의 단막극으로, 6.25 전쟁 이후 극심해진 사회적 부조리와 파탄된 인간성을 줄기차게 비판해 온 작가의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특히 현대의 기계문명과 물질만능주의, 생명경시 풍조 속에서 인간성이 상실되고 심지어 인간이 추악한 기계적 존재가 되어버린 상황을 압축적으로 그려내고 있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가치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잃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①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이 도리어 치료를 거절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사회적 부조리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경제적인 문제와 아내와의 갈등으로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는 인물의 모습은 파탄된 인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머리는 사람이지만 손은 기계인 괴물로 평가되는 의사를 제시하여 인간적 모습을 잃고 기계적 존재가 되어버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수술비 지출에 대한 부담과 아내를 살리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통해 돈이 선택의 최우선 기준이 됨을 폭로하고 있다
- ⑤ 주인공이 결국 수술을하기로 결심한 것은 인간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과 신뢰를 반영한 비극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배재고등학교 (서울)

4. 문맥적 의미가 ㉠과 같은 것은?

- ① 드디어 졸업장을 맡아서 너무 기쁘다.
- ② 잠깐만 이것 좀 맡아서 갖고 있어줄래?
- ③ 관청의 승인을 맡아서 준공을 완료했다.
- ④ 오늘은 도서관에 자리를 맡아서 다행이야.
- ⑤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맡아서 하면 좋겠어.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옥: 선생님…….

회기: ㉠(조소하는 태도로)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 줌으로써 기쁘게 해 주겠다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은 없소.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니까, 댁과 마찬가지로…….

인옥: (다시 애원하며) 그러니 수술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회기: ㉡(냉정하게)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이오.

인옥: 환자가 죽어 가도 말씀이에요?

회기: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소.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인옥: (안타깝게) 선생님…….

회기: 댁이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지요. 그렇잖아요?

인옥: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이때 금속의 표정이 크게 동요된다.)

회기: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게 마련이죠. 댁의 손처럼…….

인옥: 그리고 내 손처럼……. (이제는 눈물도 말라 버린 표정으로)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서서히 일어서며)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 개비를 스무 개씩 집어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중략)

회기: (조용하나 위엄 있게) 그렇지만, 내버려 두면 부인에게서 어떻게 된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상현: (냉혹하게) 별수 없죠! 죽고 사는 건 인력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회기: (몸을 불쾌감이 솟으며) 아니, 그럼 부인이 죽어도 괜찮단 말이오?

상현: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그대로 두는 게죠. 그 돈이 있으면 나와 어린것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회기: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그건 너무 심하지 않소?

상현: ㉢(반항적으로) 심한 건 내 아내죠.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수술을 합니까? 그것도 공으로 한다면 또 모르지만, 돈 쓰고 저 죽고 하면,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선생님! 그러니 나는…….

회기: (외치며)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소…….

(이 말이 떨어지자 금속은 의아한 표정으로 회기를 쳐다본다.)

상현: 뭐라구요?

회기: (강하게) 아내가 죽어 가도 내버려 두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상현: (처음에 지냈던 겸손과 비굴은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참견 마세요! 내 처를 내가 죽이건 살리건 무슨 걱정이오! 나 살고 남도 있지! (불쑥 일어서서 손가방을 쥐

며) 아무튼 실례했습니다! (하며 문을 탁 닫고 나가 버린다.)

(회기는 감전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고 금속은 회기를 주시하고만 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회기: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며) 정 간호사!

금속: 예?

회기: 아까 그 환자의 주소 알지!

금속: 예, 접수부를 보면…….

회기: 좋아! 그럼 속달 우편으로 보내요.

금속: 예? (하며 가까이 온다.)

회기: 수술을 받고 싶으면 편지 받는 즉시 찾아오라고!

금속: ㉣(난처한 표정으로) 아니, 그렇지만…….

회기: (속삭이듯) 자신은 있어! 그 대신 수혈용 혈액을 충분히 준비할 것을 잊지 마! 알겠어?

금속: (빙그레 웃으며) 선생님, 웬일이세요?

회기: 응? (가볍게 웃으며) 이번 환자는 꼭 살려 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군!

금속: 왜요?

회기: ㉤(분노를 띠며) 그 친구에게 살해당할 바엔 내가 말아서 살리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아!

금속: (흠웃 쳐다보며) 기계가 노하셨네요…….

회기: 잔소리 말고, 편지나 어서 써!

금속: 예! (하며 제자리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회기는 상현이 두고 간 담뱃갑을 발견하자, 담배 한 개비를 빼더니 물끄러미 바라본다.)

회기: (혼잣소리로) 담배는 포장도 중하지만 알맹이가 좋아야지!

금속: (편지를 쓰다 말고) 그 담배만은 진짜겠지요……. 공장에서 직접 나왔을 테니까…….

회기: 그렇지! (하며ライター 불을 켜다.)

초당고등학교 (경기)

5. 다음을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작품에서는 전쟁 이후의 비정한 현실과 그러한 현실에 종속되어 버린 인간을 발견할 수 있다. 비정한 현실은 인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며, 인간의 태도나 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 비인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성찰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진 인물을 통해 비정한 현실을 극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① ‘회기’는 비인간적인 자신의 모습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진 인물로 볼 수 있다.
- ② ‘인옥’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회기’에게서 비정한 의식을 지닌 인간의 모습이 나타난다.
- ③ ‘회기’가 일하고 있는 병원과 ‘인옥’이 일하고 있는 어두운 공장은 이들을 둘러싼 비정한 현실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④ 아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회기’에게 수술을 해 주지 말 것을 부탁하는 ‘상현’에게서 비인간적인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⑤ 자신의 수술을 하지 못하겠다는 ‘회기’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기계처럼 냉정하다고 이야기하는 ‘인옥’에게서 비정한 현실에 종속된 인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초당고등학교 (경기)

6. 다음을 참고하여 윗글의 등장인물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콜버그는 도덕성의 수준을 인습 이전 수준, 인습 수준, 인습 이하 수준으로 나누어 각 2단계씩 총 6단계로 설명하였다.

수준	단계	도덕 판단의 특성
인습 이전 수준	1단계: 처벌 회피 및 복종 지향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권위자의 지시와 명령에 무조건 복종함
	2단계: 도구적 자기 주의 지향	자신과 타인의 욕구에 충족이나 이익 추구를 중시함
인습 수준	3단계: 대인관계 조화 지향	타인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민감함
	4단계: 사회질서 유지 지향	규칙이나 법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됨
인습 이후 수준	5단계: 사회 계약 지향	규칙이나 법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함
	6단계: 보편적 윤리 원칙 지향	보편적인 도덕 원리와 자신의 양심을 중시. 이에 위배되는 법이나 규칙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해함

- ① 인습 이전의 단계에서 인습 이후의 단계로 도덕성의 수준이 변화되고 있는 인물이 등장한다.
- ② ‘회기’는 사회 계약 지향의 도덕성을 보이는 인물로 병원의 규칙을 변경해서라도 ‘인옥’을 살리고자 한다.
- ③ ‘상현’은 대인관계 조화 지향의 도덕성을 보이는 인물로 자신의 행동이 ‘회기’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민감하여 ‘회기’를 매우 의식한다.

- ④ ‘인옥’은 사회질서 유지 지향의 도덕성을 보이는 인물로 ‘회기’가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으로서 병원의 규칙을 거스르지 못함을 이해한다.
- ⑤ ‘금숙’은 처벌 회피 및 복종 지향의 도덕성을 보이는 인물로 ‘회기’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 받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회기’의 지시에 무조건 따른다.

초당고등학교 (경기)

7. 이야기의 흐름을 고려하였을 때 ㉠-㉤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초당고등학교 (경기)

8. 윗글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썼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현이 거칠게 문을 닫고 떠난 뒤 회기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적막한 공기 속에 금숙은 말없이 그런 회기를 주시하고만 있었다.

회기는 방금 전 상현과의 대화를 곱씹었다. 아내 덕에 살고 있으면서도 돈 때문에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다니 회기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회기는 인옥을 살려 내기로 결심했다. 그런 남편이라는 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물론 수술 결과에 자신도 있었다.

“정 간호사! 아까 그 환자에게 속달 우편으로 보내요. 수술을 받고 싶으면 편지 받는 즉시 찾아오라고!”

- ① 윗글과 같이 인물은 ‘상현’, ‘금숙’, ‘회기’가 등장한다.
- ② 윗글과 달리 과거형으로 서술하여 사건이 눈 앞에서 일어나는 듯한 생동감이 떨어진다.
- ③ 윗글과 달리 등장인물의 대사와 등장인물의 행동을 지시하는 지시문이 없어진다.
- ④ 윗글과 같이 사건은 ‘인옥에게 수술을 받으러 오라고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 ⑤ 윗글과 달리 서술자가 새롭게 등장하여 객관적인 시선으로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관찰한다.

“상기” 문체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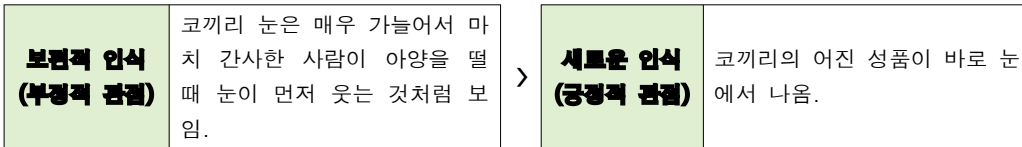
01 교수 길대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

개념	대상이나 세계에 관심을 갖고 그 대상이나 세계를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문학 양식
형상화 방법	대상이나 세계에 대한 개인의 경험, 사색, 성찰 등을 개성적인 발상이나 문체로 형상화함.
종류	설(說), 기(記), 수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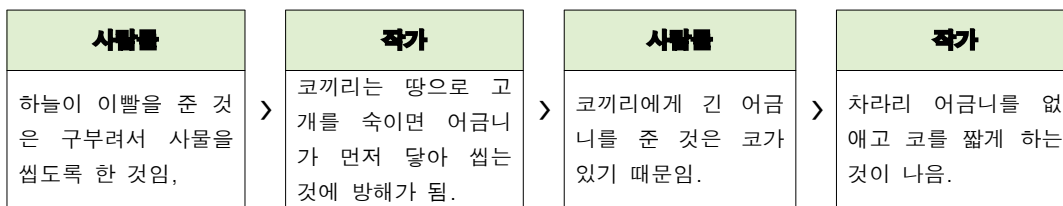
02 ‘상기(象記)’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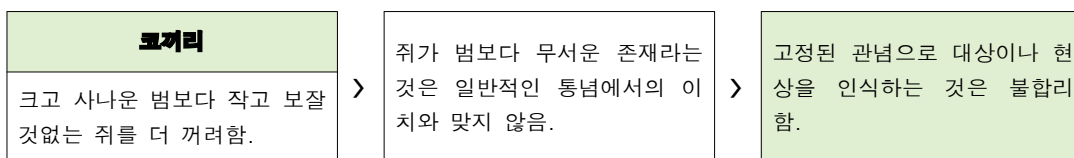
03 코끼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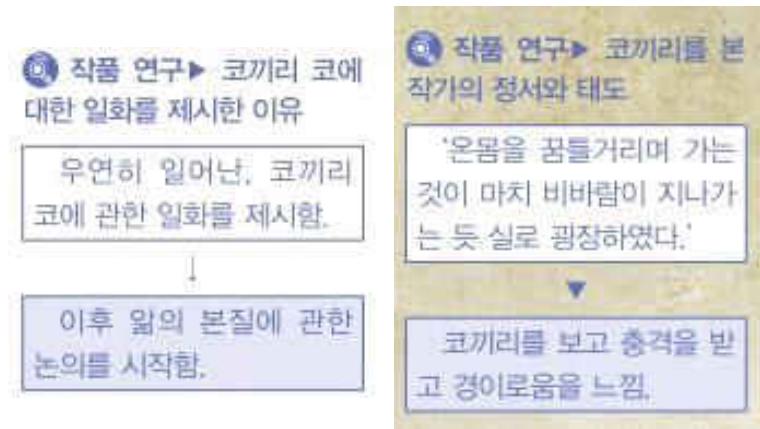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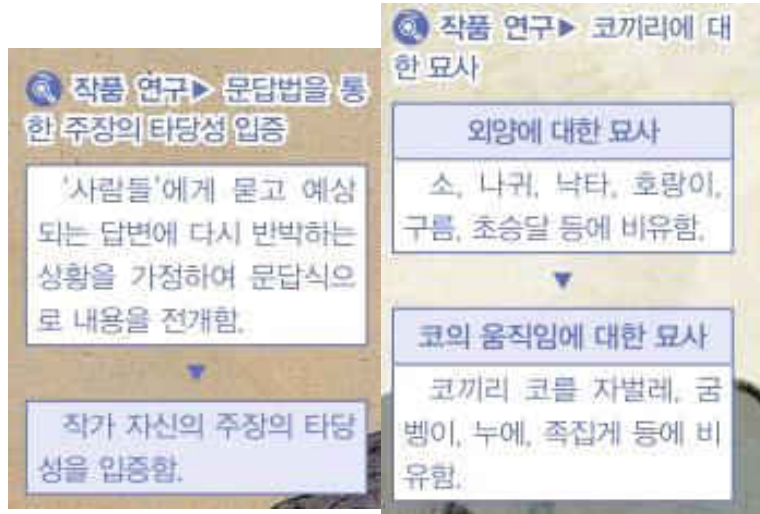


04 ‘사람들’과 작가의 문답



05 고정된 시각으로 판단할 때의 오류





“상기” 의뢰서 요약

1. 작가가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글을 썼는지 정리해 보자.
→ 작가는 열하 행궁 서쪽에서 코끼리 두 마리를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글을 썼다.
2. ㉠, ㉡에 드러나는 작가의 정서를 파악해 보자.

㉠ 지금 열하(熱河) 행궁(行宮) 서쪽에서 코끼리 두 마리를 보니, 온몸을 꿈틀거리며 가는 것이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실로 굉장하였다.

㉡ 예전에 동해 바닷가를 새벽에 지나가다가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본 적이 있다. 무수히 많기도 하고 모두 집체만큼 크기도 하여, 물고기인지 짐승인지 통 알 수가 없었다.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모두 바닷속으로 숨어 버렸다. 지금 열 걸음 거리에서 코끼리를 보며 생각해 보건대, 그때 동해에서 보았던 것과 참으로 흡사했다.

㉠	열하 행궁 서쪽에서 거대한 코끼리의 움직임을 보고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다.
㉡	동해에서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보았던 것처럼 코끼리를 보고 기이함을 느끼고 있다.

3-(4) 상기 [이론편]

3. 이 글에 나타난 당대 사람들의 생각과 이에 대한 작가의 반박을 찾아 정리해 보자.

당대 사람들의 생각	작가의 반박
하늘을 솜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서, 그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함.	캄캄하고 흠비 자욱한 속에서 하늘이 어떤 것을 만들어 냈는지 알 수 없음.
하늘이 이빨을 준 것은 고개를 숙여 사물을 씹도록 한 것임.	코끼리는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아 씹는 것에 방해가 되므로,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의 이치는 코끼리에게 적용되지 않음.

4. ‘보기’를 참고하여 작가가 성찰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그 의미를 파악해 보자.

보기	
박지원의 ‘상기(象記)’가 창작되었던 당대의 사회에서는 하늘의 이치를 절대화하여 인간의 행동 양식과 자연 현상 하나하나를 모두 하늘의 이치와 결부시켰다. 모든 것이 하늘의 이치로부터 비롯된 이(理)의 작용 아래 움직인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예외적인 법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 박수밀, ‘상기(象記)에 나타난 박지원의 글쓰기 전략’	

성찰한 것	하늘의 이치를 절대화하여 모든 것을 하늘의 이치와 결부시키는 당대의 획일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의의	작가의 성찰은 당대의 지배적 통념에서 벗어나는 사고방식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5. 다음 부분에 사용된 표현 방식과 그 효과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그 몸체를 생각해 보면 소의 몸뚱이에 나귀의 꼬리, 낙타의 무릎에 호랑이의 발. 짧은 털, 회색 빛깔, 어진 모습, 슬픈 소리를 가졌다. 귀는 구름을 드리운 듯하고 눈은 초승달 같으며, 두 개의 어금니 크기는 두 아람이나 되고 키는 한 장(丈) 남짓이나 되었다.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서 자벌레처럼 구부렸다 폈다 하며 굽벙이처럼 구부러지기도 한다. 코끝은 누에의 끝부분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족집게처럼 물건을 끼워서 들들 말아 입에 집어넣는다.

표현 방식	효과
‘소의 몸뚱이’, ‘나귀의 꼬리’, ‘낙타의 무릎’, ‘호랑이의 발’, ‘구름’, ‘초승달’, ‘자벌레’, ‘굽벙이’, ‘누에’, ‘족집게’ 등을 활용한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 코끼리의 외양과 코의 움직임을 감각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6. 작가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제시한 후, 뒤이어 이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사람들은 “뿔이 있는 것에게는 잇니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 듯 여기는 것이니, 잘못된 생각이다.

→ 상대에게 묻고 상대의 답변에 반박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문답식으로 내용을 전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밝히고 있다.

7.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로서 이 글이 지닌 개성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 이 글은 작가가 열하 행궁 서쪽에서 코끼리 두 마리를 본 경험을 바탕으로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한 글이다. 작가는 코끼리의 움직임에 보고 느낀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비유의 방법과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연계함으로써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오직 하늘의 이치만을 중시하여 모든 것에 하늘의 이치를 적용하는 세태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이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획일적인 척도로 대상을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냄으로써 글의 개성적 가치를 더욱더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행궁” 읽을 때의 생각

1. ‘맷돌’이 비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 ‘맷돌의 작용’은 만물을 만들어 내는 ‘하늘의 작용’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맷돌’의 원관념은 ‘하늘’이라고 할 수 있다.

2. 작가가 동해 바닷가에서의 경험을 떠올린 까닭이 무엇인지 추측해보자.

→ 움직이는 코끼리를 보고 과거에 이와 흡사하게 기이함을 느꼈던 동해 바닷가에서의 경험을 떠올린 것이다.

“행궁” 읽을 때의 의문

코끼리에 대한 작가의 인식 중국 베이징(북경) 사대문의 하나로 자금성의 남서쪽에 위치함
1 만일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볼 요량이면 먼저 선무문(宣武門) 안으로 가서 코끼리 우리를 구경하면 될 것이다. 내가 연경(燕京)에 코끼리를 본 첫 번째 경험
 서 본 코끼리는 열여섯 마리였는데 모두 쇠사슬로 발이 묶여 움직이는 모양을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코끼리를 본 두 번째 경험 지금 열하(熱河) 행궁(行宮) 서쪽에서 코끼리 두 마리를 보니, 온몸을 꿈틀거리며 가는 것이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실로 굉장하였다.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대비한 비유법 사용 코끼리를 보고 느낀 경이로움을 표현함. 가상하고 세함 ▶ 움직이는 코끼리를 보고 느낀 충격과 경이로움

▶ 자료실 파일 다운로드 ◀

- 출제 예상 연계 작품 정리
- 답 제거된 문제 반복 연습 파일
- 각종 시험 대비 자료 (기본문제, 자습서 등)

목적 노트

"기억나는 모든 것을 떠올려 보고 설명하고 써보라"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만일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볼 요량이면 먼저 선무문(宣武門) 안으로 가서 코끼리 우리를 구경하면 될 것이다. 내가 연경(燕京)에서 본 코끼리는 열 여섯 마리였는데 모두 쇠사슬로 발이 묶여 움직이는 모양을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지금 열하(熱河) 행궁(行宮) 서쪽에서 코끼리 두 마리를 보니, 온몸을 꿈틀거리며 가는 것이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실로 굉장하였다.

예전에 동해 바닷가를 새벽에 지나가다가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본 적이 있다. 무수히 많기도 하고 모두 집채만큼 크기도 하여, 물고기인지 짐승인지 통 알 수가 없었다.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모두 바닷속으로 숨어 버렸다. 지금 열 걸음 거리에서 코끼리를 보며 생각해 보건대, 그때 동해에서 보았던 것과 참으로 흡사했다.

(나)

어떤 사람은 코를 부리라고 착각하고 다시 코끼리의 코를 찾는데, 코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가 다섯 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눈이 쥐와 같다고 하지만, 이는 대개 코와 어금니 사이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몸뚱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엉뚱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대체로 코끼리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이 야양을 떨 때 눈이 먼저 웃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어진 성품은 바로 이 눈에서 나온다.

(다)

강희 황제 때였다. 남해자(南海子)에 사나운 범 두 마리가 있었다. 키운 지 오래되었는데도 길을 들이기가 어렵자 황제가 노하여 범을 코끼리 우리에 가두게 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크게 놀라 코를 한 번 휘두르는 바람에 범 두 마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한다. 코끼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범을 죽인 셈이 된 것이다. 코끼리는 단지 범의 냄새를 싫어하여 코를 휘둘렀을 뿐인데, 거기에 범이 잘못 맞았던 것이다.

(라)

아,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중에 터럭만 한 작은 것이라도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그러나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 형체로 말하자면 천(天)이요, 성정(性情)으로 말하자면 건(乾)이며, 주재(主宰)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상제(上帝)요, 오묘한 작용으로 말하자면 신(神)이라 하니, 그 이름도 다양하고 일컫는 것도 제각기이다. 또 이(理)와 기(氣)를 화로와 풀무로 삼고, 만물을 두루 퍼내는 것을 조물이라고 하니, 이는 하늘을 마치 솜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서 그가 망치와 끌, 도끼와 칼 등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마)

그런 까닭에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하늘이 혼돈에서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혼돈이란 그 빛이 검고 그 모양은 흠비가 내리는 듯하여, 비유를 하자면 새벽이 되었지만 아직 동이 트지는 않은 때에 사람이나 사물이 분별되지 않는 상태와 같다. 나는 알지 못하겠다. 캄캄하고 흠비 자욱한 속에서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 냈을까. 국숫집에서 보리를 갈면 작거나 크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할 것 없이 뒤섞여 바닥에 쏟아진다. 무릇 맷돌의 작용이란 도는 것일 뿐이니,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무슨 의도가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뿔이 있는 것에게는 뿔니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 듯 여기는 것이니, 잘못된 생각이다.

(바)

감히 묻는다. “이빨을 준 건 누구인가?”

사람들은 대답하리라.

“하늘이 주었다.”

다시 묻는다.

“하늘이 무엇 때문에 이빨을 주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씹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이렇게 물어보자.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게 바로 ‘이치’입니다.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부리나 주둥이를 구부려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하지요. 그러므로 학과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목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혹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트락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나는 크게 웃으면서 다시 말하리라.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란 것은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라 해 보자. 그러면 지금 저 코끼리에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심어 주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씹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핑계로 댄 양이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러면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슬며시 굴복하고 만다.

(사)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생각이 소, 말, 닭, 개에게 미칠 뿐, 용, 봉, 거북, 기린 같은 짐승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쥐를 만나면 코를 둘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라 말한다면 조금 전에 말한바 이치가 아니다.

대저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다. 하물며 천하 사물이 코끼리보다도 만 배나 더한 것임에랴.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象)’ 자를 취하여 지은 것도 만물의 변화를 궁구(窮究)하려는 까닭이었으리라.

-박지원, ‘상기’

광성고등학교 (서울)

1. (가)~(마)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연결하여 현재 대상으로부터 느낀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을 나열한 뒤에 동의하고 있다.
- ③ (다): 코끼리의 코와 관련된 일화를 제시하여, 모든 일이 의도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라): 모든 사물의 근거를 하늘에서 찾는 사람들의 인식을 열거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⑤ (마): 당시의 일반적인 통념과 관련된 글을 인용한 뒤, 예시를 통해 당시의 통념을 반박하고 있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2.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작가는 열하 행궁에서 코끼리를 처음 보았기 때문에 굉장함을 느꼈다.
- ② 작가는 ‘뿔이 있는 것에겐 뿔니를 주지 않는다.’는 말에 공감하고 있다.
- ③ 작가는 동해 바닷가를 지나가다가 고래를 본 경험을 코끼리를 본 경험과 연결 짓고 있다.
- ④ 작가는 코끼리에 대한 엉뚱한 오해가 코끼리의 몸통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부분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한다.
- ⑤ 작가는 ‘하늘’이라는 솜씨 좋은 장인이 쉬지 않고 일해 만물을 창조했다고 생각한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3. 다음을 바탕으로 (바)문단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학생은?

문답의 구조는 작가가 일방적으로 글을 전개하지 않고 인물들을 등장시켜 그 인물들과의 대화를 통해 전개하여 자신의 논리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상기>에서 연암은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여 대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도를 효율적으로 드러냈는데, 대화와 문답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난해하거나 논란이 많은 내용을 독자에게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다. 둘째, 문제 해결 과정을 보여주기에 용이하다. 셋째, 독자 스스로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다.

- ① 혜주: 작가는 문답의 구조를 활용해서 독자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를 바랐던 것 같아.
- ② 성희: ‘이치’를 중요시했던 당해 사회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문답의 구조를 활용해서 친근하게 전달하고 있어.
- ③ 지민: 나는 연암이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좋았어.
- ④ 정분: 문답의 구조로 문단을 진행하니, 연암이 제시한 문제의 해결 과정이 잘 드러나서 이해하기 편했어.
- ⑤ 민경: 연암이 실제 겪은 일화를 문답으로 구성해서 생생함도 잘 느껴졌어.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중에 터럭만 한 작은 것이라도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그러나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 형체로 말하자면 천(天)이요, 성정(性情)으로 말하자면 건(乾)이며, 주재(主宰)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상제(上帝)요, 오묘한 작용으로 말하자면 신(神)이라 하니, 그 이름도 다양하고 일컫는 것도 제각기이다. 또 이(理)와 기(氣)를 화와와 풀무로 삼고, 만물을 두루 퍼내는 것을 조물이라고 하니, 이는 하늘을 마치 솜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서 그가 망치와 끌, 도끼와 칼 등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하늘이 혼돈에서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혼돈이란 그 빛이 검고 그 모양은 흙비가 내리는 듯하여, 비유를 하자면 새벽이 되었지만 아직 동이 트지는 않은 때에 사람이나 사물이 분별되지 않는 상태와 같다. 나는 알지 못하겠다. 캄캄하고 흙비 자욱한 속에서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 냈을까. ㉢국숫집에서 보리를 갈면 작거나 크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할 것 없이 뒤섞여 바닥에 쏟아진다. 무릇 맷돌의 작용이란 도는 것일 뿐이니,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무슨 의도가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뿔이 있는 것에게는 뿔니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 듯 여기는 것이니, 잘못된 생각이다.

감히 묻는다.

“이뿔을 준 건 누구인가?”

사람들은 대답하리라.

“하늘이 주었다.”

다시 묻는다.

“하늘이 무엇 때문에 이뿔을 주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씹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이렇게 물어보자.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게 바로 ‘이치’입니다.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부리나 주둥이를 구부려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하지요. 그러므로 학과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목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혹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뜨락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나는 크게 웃으면서 다시 말하리라.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란 것은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하늘이 이뿔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라 해 보자. 그러면 지금 저 코끼리에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심어 주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씹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핑계로 댄 양이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러면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슬며시 굴복하고 만다.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생각이 소, 말, 닭, 개에게 미칠 뿐, 용, 봉, 거북, 기린 같은 짐승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쥐를 만나면 코를 둘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라 말한다면 조금 전에 말한바 이치가 아니다.

㉤대저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다. 하물며 천하 사물이 코끼리보다도 만 배나 더한 것임에랴.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象)’ 자를 취하여 지은 것도 만물의 변화를 궁구(窮究)하려는 까닭이었으리라

- 박지원, ‘상기’

배재고등학교 (서울)

4. 다음은 윗글과 서정 갈래를 비교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ㄱ. 윗글은 서정갈래에 비해 자아의 주관적 감정이 현실을 압도한다.
- ㄴ. 윗글은 서정갈래에 비해 대상을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 ㄷ. 윗글은 서정갈래에 비해 인간에게 미치는 정서적 감응을 중심으로 한다.
- ㄹ. 윗글은 서정갈래와 달리 작가의 대리인 없이 독자에게 내용을 직접 전달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배재고등학교 (서울)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필자는 신의 존재는 없다고 생각한다
- ② 피리자는 코끼리 어금니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③ 필자는 맷돌의 작용은 불규칙적이라고 생각한다.
- ④ 필자는 소는 하늘의 이치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⑤ 필자는 초월적 세계를 들어 사람들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배재고등학교 (서울)

6. <보기>를 토대로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이 글은 극적인 질문으로 독자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우연성을 활용하거나 정의를 내려 독자를 이해시키죠. 그리고 문답식 전개를 취하여 상대를 궁지로 몰아가는 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끼리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함을 통해 확실적 사고의 폐단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각 단락은 단절되지 않고 연쇄적으로 긴밀하게 조응하고 있어 독자들은 끝까지 긴장하며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① ㉠은 설의적 표현으로 독자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군
- ② ㉡은 특정 단어를 필자가 생각하는 뜻으로 정의를 내려 이해를 돕는군
- ③ ㉢은 우연성에 대한 설명으로 비유를 사용하는군
- ④ ㉣은 상대성에 대한 설명으로 어금니와 코의 상보적 관계를 정립하는군
- ⑤ ㉤은 앞 단락과 연쇄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군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만일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볼 요량이면 먼저 선무문(宣武門) 안으로 가서 코끼리 우리를 구경하면 될 것이다. 내가 연경(燕京)에서 본 코끼리는 열 여섯 마리였는데 모두 쇠사슬로 발이 묶여 움직이는 모양을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지금 열하(熱河) 행궁(行宮) 서쪽에서 코끼리 두 마리를 보니, 온몸을 꿈틀거리며 가는 것이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실로 굉장하였다.

예전에 동해 바닷가를 새벽에 지나가다가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본 적이 있다. 무수히 많기도 하고 모두 집채만큼 크기도 하여, 물고기인지 짐승인지 통 알 수가 없었다.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모두 바닷속으로 숨어 버렸다. 지금 열 걸음 거리에서 코끼리를 보며 생각해 보건대, 그때 동해에서 보았던 것과 참으로 흡사했다.

그 몸체를 생각해 보면 소의 몸뚱이에 나귀의 꼬리, 낙타의 무릎에 호랑이의 발, 짧은 털, 회색 빛갈, 어진 모습, 슬픈 소리를 가졌다. 귀는 구름을 드리운 듯하고 눈은 초승달 같으며, 두 개의 어금니 크기는 두 아람이나 되고 키는 한 장(丈) 남짓이나 되었다.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서 자벌레처럼 구부러졌다 폼다 하며 굽뿔이처럼 구부러지기도 한다. 코 끝은 누에의 끝부분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족집게처럼 물건

을 끼워서 돌돌 말아 입에 집어넣는다.

어떤 사람은 코를 부리라고 착각하고 다시 코끼리의 코를 찾는데, 코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가 다섯 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눈이 쥐와 같다고 하지만, 이는 대개 코와 어금니 사이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몸뚱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엉뚱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대체로 코끼리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이 아양을 떨 때 눈이 먼저 웃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어진 성품은 바로 이 눈에서 나온다.

강희 황제 때였다. 남해자(南海子)에 사나운 범 두 마리가 있었다. 키운 지 오래되었는데도 길을 들이기가 어렵자 황제가 노하여 범을 코끼리 우리에 가두게 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크게 놀라 코를 한 번 휘두르는 바람에 범 두 마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한다. 코끼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범을 죽인 셈이 된 것이다. 코끼리는 단지 범의 냄새를 싫어하여 코를 휘둘렀을 뿐인데, 거기에 범이 잘못 맞았던 것이다.

아,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중에 터럭만 한 작은 것이라도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그러나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 형태로 말하자면 (㉠)이요, 성정(性情)으로 말하자면 (㉡)이며, 주재(主宰)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요, 오묘한 작용으로 말하자면 (㉣)이라 하니, 그 이름도 다양하고 일컫는 것도 제각기이다. 또 이(理)와 기(氣)를 화로와 풀무로 삼고, 만물을 두루 퍼내는 것을 조물이라고 하니, 이는 하늘을 마치 솜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서 그가 망치와 끌, 도끼와 칼 등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하늘이 혼돈에서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혼돈이란 그 빛이 검고 그 모양은 흙비가 내리는 듯하여, 비유를 하자면 새벽이 되었지만 아직 동이 트지는 않은 때에 사람이나 사물이 분별되지 않는 상태와 같다. 나는 알지 못하겠다. ㉡감감하고 흙비 자욱한 속에서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 냈을까. ㉢굴속집에서 보리를 갈면 작거나 크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할 것 없이 뒤섞여 바닥에 쏟아진다. 무릇 ㉣맷돌의 작용이란 도는 것일 뿐이니,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무슨 의도가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뿔이 있는 것에게는 뿔니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 듯 여기는 것이니, 잘못된 생각이다.

감히 묻는다.
 “이빨을 준 건 누구인가?”
 사람들은 대답하리라.
 “하늘이 주었다.”
 다시 묻는다.
 “하늘이 무엇 때문에 이빨을 주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씹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이렇게 물어보자.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A] “그게 바로 ‘이치’입니다.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부리나 주둥이를 구부려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하지요. 그러므로 학과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목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혹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트랙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나는 크게 웃으면서 다시 말하리라.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란 것은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라 해 보자. 그러면 지금 저 코끼리에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심어 주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씹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핑계로 덜 양이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러면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슬며시 굴복하고 만다.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생각이 소, 말, 닭, 개에게 미칠 뿐, 용, 봉, 거북, 기린 같은 짐승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쥐를 만나면 코를 둘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라 말한다면 조금 전에 말한바 이치가 아니다.

대저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다. 하물며 천하 사물이 코끼리보다도 만 배나 더한 것임에랴.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象)’ 자를 취하여 지은 것12도 만물의 변화를 궁구(窮究)하려는 까닭이었으리라..

-박지원, ‘상기’

유신고등학교 (경기)

7. 윗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가의 주관적인 정서를 함축적인 언어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념을 깨는 철학적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특정 공간과 시간을 배경으로 인물이 겪는 갈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외부 세계가 인간에게 미치는 정서적 감응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 ⑤ 서술자의 개입 없이 인물들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 사건과 갈등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유신고등학교 (경기)

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연히 일어난, 코끼리의 코와 관련된 일화를 제시함
- ② 과거에 동해 바닷가에서 코끼리를 보았던 경험을 회상함
- ③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코끼리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함
- ④ 코끼리의 눈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과 새로운 인식을 언급함
- ⑤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대비하여 코끼리를 보고 느낀 경이로움을 표현함

유신고등학교 (경기)

9. 윗글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①	상제(上帝)	천(天)	신(神)	건(乾)
②	건(乾)	상제(上帝)	천(天)	신(神)
③	신(神)	천(天)	건(乾)	상제(上帝)
④	천(天)	건(乾)	상제(上帝)	신(神)
⑤	건(乾)	신(神)	상제(上帝)	천(天)

유신고등학교 (경기)

1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모든 사물의 근거를 하늘에서 찾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 ② ㉡: 혼돈 상태에서 하늘이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과 감탄을 표현한 것이다
- ③ ㉢: 하늘이 만물을 만들 때의 상태를 비유한 것이다
- ④ ㉣: 만물을 만들어 내는 하늘의 작용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 ⑤ ㉣: 사물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여기는 생각이 담겨 있다

유신고등학교 (경기)

11. 윗글의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 [A]에서 활용한 (1) 글의 전개 방식을 쓰고, [A]에서 확인 할 수 있는 (2) 작가의 생각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음운의 변동” 관련 명칭

1. 음운 변동의 개념과 유형

개념	한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	
유형	교체	어느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경우
	축약	서로 다른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한 개의 음운으로 바뀌는 경우
	탈락	두 음운 중 하나의 음운이 발음되지 않는 경우
	첨가	두 음운 사이에 새로운 음운이 생겨나는 경우

2. 음운 변동 현상

교체 현상	비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각각 비음인 ‘ㅇ, ㄴ, ㄹ’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국물[궁물] 유음 ‘ㄹ’이 비음 ‘ㅇ, ㅍ’ 뒤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염려 [[염녀]]
	유음화	비음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실내[실래]
	구개음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그 ‘ㄷ, ㅌ’이 구개음 ‘ㄷ, 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굳이[구지]
	원소리되기	안울림 예사소리인 ‘ㄱ, ㄷ, ㅂ, ㅅ, ㅈ’이 원소리인 ‘ㄱ, ㄷ, ㅂ, ㅅ, ㅈ’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국밥[국뽕]
축약 현상	거센소리되기	‘ㄱ, ㄷ, ㅂ, ㅈ’과 ‘ㅎ’이 합쳐져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백합[배깅]
탈락 현상	모음 탈락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두 모음이 이어서 소리 날 때 그중 한 모음이 탈락하여 발음되는 현상 예 가- + -아 → 가
첨가 현상	반모음 첨가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뒤에 모음 ‘ㄴ, ㄹ’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거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조사 ‘에’가 결합할 때, 반모음 ‘ㅣ[j]’가 새로 생겨 발음되는 현상 예 되어[되어/되어]

3. 두음 법칙의 개념과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

개념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적용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ㅣ, ㅍ, ㅋ, ㅌ, ㅍ’ 앞에서의 ‘ㄹ’과 ‘ㄴ’ 소리가 탈락하는 경우 예 남녀(男女) : 여자(女子) ‘ㅌ, ㄷ, ㅌ, ㅌ, ㅌ, ㅌ, ㅌ’ 앞의 ‘ㄹ’이 ‘ㄴ’으로 바뀌는 경우 예 쾌락(快樂) : (ㄴ)원(樂園)

국어의 단모음 체계

혀의 앞뒤 입술의 혀의 높이	모양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ㅍ	ㅡ	ㅍ
중모음		ㅑ	ㅑ	ㅑ	ㅑ
저모음		ㅓ		ㅓ	

반모음 첨가

반모음이란 혼자서는 음절을 이루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모음에 붙어야 발음될 수 있는 모음을 말한다. 반모음에는 'ㄷ'와 'ㄱ/ㄱ'이 있는데, 반모음 'ㄷ'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이중 모음에는 'ㅌ, ㅋ, ㅍ, ㅊ, ㅊ, ㅋ, ㆁ'이 있고, 반모음 'ㄱ/ㄱ'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이중 모음에는 'ㄱ, ㆁ, ㆁ, ㆁ'이 있다.

반모음 첨가는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그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는 것으로, 두 형태소가 만날 때 그 사이에 새로운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의 하나이다. 이는 단모음과 단모음이 연이어 발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적용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며,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피+어'는 [피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모음 첨가가 일어난 [피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러나 표기는 '피어'로만 해야 한다.

● 보충 ▶ 자음 탈락

자음군 단순화
음절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일 때 이중 하나를 탈락시킨 ㉠ 뒷(복), 울대(응따) → 표준 발음법 제 10, 11항과 관련됨.
'ㄹ' 탈락
조음 위치가 같거나 비슷한 자음 앞에서 'ㄹ'이 탈락함. ㉡ 살다(사네, 사세, 사오), 화살(할+살) → 한글 맞춤법 제18항 1, 제28항과 관련됨.
'ㅎ' 탈락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ㅎ'이 탈락함. ㉢ 불어대싸이다 → 표준 발음법 제12항 4와 관련됨.

④ 지문 연구 ▶ '모음 탈락' 관련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제34항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한글 맞춤법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4. 어간의 끝 'ㄴ, ㄹ'이 줄어들 적 ㉣ 크다: 커, 컸다

④ 지문 연구 ▶ '거센소리되기' 관련 표준 발음법

표준 발음법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ㅏ, ㅑ)' 뒤에 'ㄱ, ㄷ, 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ㄱ, ㄷ, ㅌ]으로 발음한다. [불입기 받침 'ㄱ'(ㄱ, ㄷ, ㅌ) x(ㅏ)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ㄱ, ㄷ, ㅌ]으로 발음한다.

④ 지문 연구 ▶ 거센소리

거센소리
숨이 거세게 나오는 자음. 국어의 'ㅌ, ㅋ, ㅍ, ㅊ' 등이 있다.

● 보충 ▶ 'ㄴ' 첨가와 관련된 표준 발음법

표준 발음법 제29항
합성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ㄷ, ㅌ, ㅍ, ㅊ'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나, 네, 노, 누로 발음한다.

지문 연구 ▶ '두음 법칙' 관련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제10항
한자음 '네,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한글 맞춤법 제11항
한자음 '라, 러, 레,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아, 어,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한글 맞춤법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료,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지문 연구 ▶ '원소리되기' 관련 표준 발음법

표준 발음법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ㅈ, ㅊ, ㅌ), ㅂ(ㅂ, ㅃ,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원소리로 발음한다.
표준 발음법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은 원소리로 발음한다.
표준 발음법 제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원소리로 발음한다.
표준 발음법 제26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원소리로 발음한다.

지문 연구 ▶ '예사소리와 원소리'

예사소리
구강 내부의 기압 및 발음 기관의 긴장도가 낮아 약하게 파열되는 자음. 'ㄱ', 'ㄷ', 'ㅂ', 'ㅅ', 'ㅈ' 등을 이른다.
원소리
후두 근육을 긴장하면서 기식이 거의 없이 내는 자음. 'ㄴ', 'ㄷ', 'ㅃ', 'ㅍ', 'ㅆ' 등의 소리이다.

지문 연구 ▶ '구개음화' 관련 표준 발음법

표준 발음법 제17항
받침 'ㄷ, ㅌ(ㄷ)'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붙임]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지문 연구 ▶ '비음화' 관련 표준 발음법

표준 발음법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ㅈ, ㅊ, ㅌ), ㅂ(ㅂ, ㅃ, ㅍ, ㅍ)'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표준 발음법 제19항
받침 'ㄹ, ㅇ' 뒤에 연결되는 'ㄱ'은 [ㄴ]으로 발음한다. [붙임] 받침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

보충 ▶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우리말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이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고 이외의 자음은 7개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

ㄱ, ㅋ, ㆁ	→	[ㄱ]
ㄴ	→	[ㄴ]
ㄷ, ㅌ, ㅈ, ㅊ, ㅌ, ㅆ, ㅈ, ㅊ	→	[ㄷ]
ㄹ	→	[ㄹ]
ㅁ	→	[ㅁ]
ㅂ, ㅃ	→	[ㅂ]
ㅇ	→	[ㅇ]

지문 연구 ▶ '유음화' 관련 표준 발음법

표준 발음법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 서 [ㄹ]로 발음한다.

“음운의 변동” 크리시션 문제

1. 다음 단어들을 발음해 보고, 어떤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는지 쓰시오.

작년[장년]	→	비음화
역도[역또]	→	된소리되기
한라산[할:라산]	→	유음화
로(老)+인(人)[노:인]	→	두음 법칙
생각하다[생가카다]	→	거센소리되기
여달에[여:다지]	→	구개음화
써(쓰-+어)[써]	→	모음 탈락

2.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발음해 보자.

반지가 그녀의 손가락에 꼭 맞는다.	이 마을은 홍수로 큰 물난리를 겪었다.	이번 휴가는 가족과 값지게 보냈다.
---------------------	-----------------------	---------------------

→ [만는다], [물날리], [갑찌게]

3. 밑줄 친 단어들을 올바르게 고쳐 써 보고, 그 단어들에 어떤 음운 변동 현상이 반영된 것인지 알아보자.

- * 국어 수행 평가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글짓기’ 어떻게 쓸 건지 생각해 봤어?
- *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구지 밀리서 찾지 말고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고 쓸 꺼야.

올바른 표기	반영된 음운 변동 현상
· 분리배출	· 유음화
· 어떻게	· 거센소리되기
· 굳이	· 구개음화
· 거야	· 된소리되기

4. 표시된 부분에 유의하여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어 보자.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습도]가 높았으나, 내일은 다시 [햇볕]이 내리쬐고 무척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강릉], 속초, [대관령]에는 한차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 [만:코], [습도], [해뻘치 / 햇뻘치], [강능], [대:괄령]

모락고등학교 (경기)

1. <보기>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의 예로만 묶인 것은?

<보기>

음운 변동의 유형 중 특이한 것으로 축약을 들 수 있다. 축약은 'A'와 'B'라는 두 음운이 결합하여 'C'라는 제삼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음운 변동이다. 국어의 축약은 주로 'ㅎ'과 다른 자음이 결합할 때 일어난다.

- ㉠ 잃고[일코], 많군[만쿤] ㉡ 얹아[아나], 많지[만치]
- ㉢ 넣은[너은], 놓다[노타] ㉣ 많네[만네], 쌓은[싸은]
- ㉤ 쌓는[싼는], 앓고[안코]

모락고등학교 (경기)

2. 밑줄 친 말 중에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음운 변동의 유형 중 탈락의 한 종류로서, 두 개의 모음이 만났을 때 그 중 한 개의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모음 탈락이라고 한다.

예 쓰- + -어 → [써], 푸- + -아서 → [퍼서]

- ㉠ 눈을 떠 보니 집이었지 뭐야.
- ㉡ 눈에 띄게 네 얼굴이 수척해졌어.
- ㉢ 결국 만형이 모든 일을 처리해야 돼.
- ㉣ 이거 마음에 들면 내가 가져도 괜찮아.
- ㉤ 공책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 한참 찾았어.

모락고등학교 (경기)

3.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한다. 유음화는 음운이 동화되는 방향에 따라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로 나눌 수 있다.

- | | |
|-----------|-----------|
| ㉠ 순행적 유음화 | ㉡ 역행적 유음화 |
| ㉠ 물난리 | 종로 |
| ㉢ 광한루 | 대관령 |
| ㉣ 전라도 | 논란 |
| ㉤ 줄넘기 | 강릉 |
| ㉥ 실내 | 탄력 |

모락고등학교 (경기)

4. <보기1>과 <보기2>를 참고로 학생들이 된소리되기 현상을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1>

된소리되기란,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앞의 소리에 영향을 받아 된소리인 'ㄱ, ㄷ, ㅃ, ㅆ, ㅉ'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이다.

<보기2>

표준발음법 제6장 된소리되기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ㅌ), ㄷ(ㅌ, ㅍ, ㅊ, ㅍ, ㅍ), ㅂ(ㅍ, ㅍ,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꽃고[꼰꼬], 넓죽하다[넙쭈카다]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ㄹ,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삼고[삼꼬], 꺾안다[껴안다]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예) 안기다[안기다], 굶기다[굶기다]

제26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ㅂ,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갈등[갈똥], 물질[물짚]

제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할 것을[할꺼술], 갈 데가[갈때가]

- ㉠ '깎아'가 [까까]로 발음되는 이유는 제23항에 따라 받침 'ㄴ'이 'ㄱ'으로 발음되어 뒤에 연결되는 'ㄱ'을 된소리로 만들기 때문이야.
- ㉡ '더듬지'가 [더뎡찌]로 발음되는 것처럼 '감기다' 또한 제24항이 적용되어 [감끼다]로 발음해야 해.
- ㉢ 제24항에 따르면 표기상으로는 똑같이 '신고'라고 할지라도 그 의미와 성격에 따라 [신포]라고 발음해야 하는 것과 [신포]라고 발음해야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어.
- ㉣ '넙똥글다'는 [넙똥글다]로 발음해야 하는데, 이는 받침 'ㄹ' 중에서 'ㄹ'만 남아 제26항이 적용되기 때문이야.
- ㉤ 사람들이 '내 것'이라는 말을 [내꺼]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제27항에 따른 것이야.

모락고등학교 (경기)

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험력 → [험녁] ㉡ 휴만 → [휴만]
 ㉢ 옷맵시 → [온맵씨]

- ㉠ ㉠ : 인접한 자음의 특성에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다.
- ㉡ ㉡ : 음운 변동 후 음운의 수가 많아진 것은 아니다.
- ㉢ ㉢ : 2번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 ㉣ ㉠, ㉡, ㉢, ㉣ :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 ㉤ ㉠, ㉡, ㉢ : 표기와 발음이 달라지는 이유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6. 다음은 문법 수업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 입	• 선생님의 설명 : ‘굳이[구지], 끝이[끄치], 붙이다[부치다]’처럼 ‘ㄷ, ㅌ’이 모음 ‘ㅣ’를 만나면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 라고 합니다. 그런데 ‘견디다[견디다], 티끌[티끌], 흠이불[흔이불]’ 등에서도 ‘ㄷ, ㅌ’이 모음 ‘ㅣ’를 만나지만 ‘ㅈ, ㅊ’로 발음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학습활동을 차례대로 풀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합니다.				
전 개	(1) 각 단어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 5px 0;">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td> </tr> <tr> <td style="padding: 5px;"> • 굳이=굳--+이 • 끝이=끝--+이 • 붙이다=붙--+이--+다 </td> <td style="padding: 5px;"> • 견디다=견디--+다 • 티끌=티끌 • 흠이불=흠--+이불 </td> </tr> </table> (2) (1)을 통해 알 수 있는 음운 변동 환경을 정리해 보자. → ㉠에서는 ‘ㄷ, ㅌ’와 ‘ㅣ’가 ㉡에서 만나고, ㉡에서는 ‘흠이불’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ㄷ, ㅌ’와 ‘ㅣ’가 ㉢에서 만난다. (3) 모음 ‘ㅣ’가 속해 있는 형태소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 ㉠의 ‘-이’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 ㉢이고, ㉡의 ‘이불’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이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 굳이=굳--+이 • 끝이=끝--+이 • 붙이다=붙--+이--+다	• 견디다=견디--+다 • 티끌=티끌 • 흠이불=흠--+이불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 굳이=굳--+이 • 끝이=끝--+이 • 붙이다=붙--+이--+다	• 견디다=견디--+다 • 티끌=티끌 • 흠이불=흠--+이불				
정 리	• 선생님의 설명 : 위의 학습활동에서 살펴본 것처럼 ㉠ 현상은 형태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 구개음화/한 형태소/형태소 경계/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 ㉡ 구개음화/형태소 경계/한 형태소/실질 형태소/형식 형태소
- ㉢ 구개음화/형태소 경계/한 형태소/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 ㉣ 거센소리되기/형태소 경계/한 형태소/실질 형태소/형식 형태소
- ㉤ 거센소리되기/형태소 경계/한 형태소/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양재고등학교 (서울)

7. 다음 문장에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를 모두 찾아 <조건>에 맞게 표준 발음을 쓰시오.

나는 오늘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지은이와 선릉역 서점에 갔는데 지하철을 잘못 타서 조금 늦게 서점에 도착했다.

<조건>
작성 방법 : 국민[궁민]

양재고등학교 (서울)

8.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에 적용된 음운 변동이 동일 하게 나타난 예가 아닌 것은?

<보기>
 국어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등의 음운 변동이 있다.
 ㉠ 우리 누나는 법학과[버팍팍]에 다니고 있다.
 ㉡ 이번 방학에 뜻하지[뜨타지] 않은 행운을 만났다.
 ㉢ 밥을 다 먹었는데[머건는데] 빵도 먹었다.
 ㉣ 친구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나널따].
 ㉤ 마을 최고의 권력자[겉력자]는 촌장이었다.

- ㉠ ㉠올해 입학식은 3월 2일이었다.
- ㉡ ㉡이렇게 번듯한 가구를 왜 버리는지 모르겠다.
- ㉢ ㉢새로 이사 간 우리 집은 분얼만 크다.
- ㉣ ㉣수지가 나에게 꽃다발을 선물로 주었다.
- ㉤ ㉤촌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했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9.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의 변동과 음운의 개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보기>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그것이다. 음운의 변동 전후로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교체'는 개수의 변화가 없고 '탈락'과 '축약'은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듦에 '첨가'는 음운의 개수가 하나 늘어난다.

- ㉠ '배춧잎[배춘닙]'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났다.
- ㉡ '줄넘기[줄럼끼]'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났다.
- ㉢ '국화꽃[구과꼇]'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났다.
- ㉣ '닭다리[닥따리]'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 ㉤ '편입학[피니팍]'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10. <보기>를 참고할 때 동화의 방향이 다른 것은?

<보기>

자음 동화는 음절의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닮거나 양쪽 모두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자음 동화 현상에는 '비음화, 유음화'가 있다.

이러한 자음 동화 현상은 변화 방향에 따라 '순행 동화'와 '역행 동화'가 있다. '순행 동화'란 인접해 있는 두 자음 중에서 뒤의 소리가 앞의 소리를 닮는 것이고, '역행 동화'란 인접해 있는 두 자음 중에서 앞의 소리가 뒤의 소리를 닮는 것이다.

- ㉠ 광한루 ㉡ 흙만 ㉢ 대관령 ㉣ 달나라 ㉤ 굽는

양재고등학교 (서울)

11. <보기>의 ㉠~㉤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보기>

된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ㅅ, ㅈ'과 같은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된소리로 발음된다.

- ㉠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ㅈ, ㅉ, ㅊ, ㅊ, ㅌ, ㅎ, ㅏ, ㅑ, ㅓ, ㅕ, ㅖ)' 뒤에 'ㄱ, ㄷ, ㅂ, ㅅ, ㅈ'가 올 때
- ㉡ 어간 받침 'ㄴ(LX), ㄹ(ㄹX)' 뒤에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인 어미가 올 때
- ㉢ 한자어에서, 'ㄱ' 받침 뒤에 'ㄷ, ㅂ, ㅅ'이 올 때
- ㉤ 어간 받침 'ㄹ, ㄹ' 뒤에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인 어미가 올 때

- | | | | |
|------|------|--------|----|
| ㉠ | ㉡ | ㉢ | ㉤ |
| 책상 | 신다 | 절기(節氣) | 흙다 |
| 국밥 | 젊다 | 발전(發展) | 넓다 |
| 각두기 | 닭다 | 전등(前燈) | 밝다 |
| 압박감 | 끼었다 | 설계(設計) | 핥다 |
| 야단법석 | 뛰어넘다 | 결과(結果) | 웁다 |

신송고등학교 (인천)

12. (가)의 ㉠, ㉡에 들어갈 표준 발음을 (나)를 참고하여 바르게 쓰시오.

(가) 학생의 탐구 내용

지난 시간의 문법탐구 모둠활동에서 같은 단어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를 공부했어. 이번 시간에 배운 표준 발음법에 따라 이 단어들의 올바른 발음을 생각해 보니, '닭은'은 (㉠), '닭 앞'은 이어서 발음하면 (㉡)(으)로 발음해야 해.

(나) 표준 발음법 조항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엎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ㅖ'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 요약 정리

1. 한글 맞춤법의 개념과 필요성

개념	한글로써 우리말을 표기하는 규칙의 전반을 뜻함.
필요성	맞춤법은 글을 위한 것으로서, 올바른 표기 생활을 위해 맞춤법이 필요함.

2.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한글 맞춤법 총칙의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원칙 1. '소리대로 적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적는 것을 의미함. • 한글은 표음 문자이자 음소 문자이므로, 자음과 모음의 결합 형식에 의해 표준어를 소리대로 표기함. 예) 돌[돌], 눈물[눈물], 꿈[꿈]
원칙 2. '어법에 맞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형태소를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동일하게 표기함. • 단어는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될 수 있으므로,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음. →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언제나 동일하게 적으면 그 뜻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음. 예) 읽어[일거], 읽는[잉는], 읽자[익짜] → '읽-'

3.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과 필요성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	띄어쓰기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총칙 제2항) → 독립적으로 쓰이는 최소의 언어 단위인 단어(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감탄사, 조사)는 띄어 써야 함. •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한글 맞춤법 제41항) → 다만, 조사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하게 그 앞의 말에 붙여 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띄어쓰기를 하면 안 한 경우보다 독해가 훨씬 수월함. • 의미가 자연스럽게 통하도록, 호흡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알맞게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올바른 문자 생활을 위해 필요한 일임.

④ 지문 연구 ▶ 단어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하는 말, 또는 그 말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을 일컫는다. “철수가 영희의 일거를 읽은 것 같다.”에서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철수’, ‘영희’, ‘일거’, ‘읽은’, ‘같다’와 조사 ‘가’, ‘의’, ‘를’, 의존 명사 ‘것’ 등이다.

④ 지문 연구 ▶ 표준어의 개념

표준어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단어.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

“한글 맞춤법의 원리” 교과서 원리

1. 다음 단어를 한글 맞춤법의 표기 원칙에 따라 나누어 보자.

넘어지다	드러나다	길이	넌따랏다	아무튼	굶다랏다
소리대로 적기			어법에 맞도록 적기		
드러나다, 넌따(랏다), 아무튼			넘어지다, 길이, (넌따)랏다, 굶다랏다		

2. 다음 중 올바른 표기를 골라 보고, 이와 관련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찾아 바르게 연결해 보자.

<input type="checkbox"/> 안팎 ✓안팎(㉠)	㉠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간편게(㉡) <input type="checkbox"/> 간편게	㉡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input type="checkbox"/> 귀거리 ✓귀걸이(㉢)	㉢ 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더욱이(㉣) <input type="checkbox"/> 더우기	㉣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3. 다음 문장에서 띄어 써야 할 곳에 √를 해 보자.

(1) 그녀는√꽃처럼√아름답다.
(2) 그를√만남√지√한√달이√지났다.
(3) 나는√강아지를√두√마리√기른다.

4. 다음 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괄호 안의 표기 중 알맞은 것을 골라 보자.

학교에서 돌아오니 엄마께서 부엌에서 혼자 배추를 (저리고×, 절이고 ○) 계셨다. 엄마는 시험 기간이니 공부를 하라고 하셨지만, 아들(로서○, 로써×)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가방을 내려놓고 엄마를 도와드렸다. 그리고 방에 들어와 시험공부를 하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창문이 저절로 (닫혔다○, 닫혔다×). 얼마나 놀랐(던지○, 든지×)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5. 표기가 잘못된 것을 골라 고쳐보자.

훗날	아래마을	전셋방 (傳貰房)	나뭇잎	북어국
----	------	--------------	-----	-----

→ 아랫마을, 전세방, 북엇국

발곡고등학교 (경기)

1.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쓴 문장은?

- ㉠ 몹시 더웠는데 바람을 쐬니까 기분이 좋다.
- ㉡ 갈국수를 먹어야 하니 깍뚜기를 듬뿍 담아라.
- ㉢ 모든 학생들이 대청소를 하느라 야단법석이다.
- ㉣ 정부는 낮은 출산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 ㉤ 올 해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이전 년도보다 높다.

발곡고등학교 (경기)

2. ㉠~㉤을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띄어 쓴 것으로 바른 것은?

남자 : 그렇습니다. 덤,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수없이많은 것들이떠나갔습니다. 뭐, 놀랄 건 못되지요. ㉡그저시간이 지난것뿐이니까요.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개의 이파리들을되돌려주고도아무소리없습니다. 덤, 나는 고양이를 한 마리를 길러 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차츰 늙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가자 그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연했습니다. 덤, 덤, 덤 ㉣난뭔가진실한걸안것같습니다. 덤, 덤, 그래요. 난 이제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것, ㉤나에게는그게유일한자랑이될겁니다.

- ㉠ ㉠ : 헤아릴 수없이 많은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 ㉡ ㉡ : 그저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 ㉢ ㉢ : 수천개의 이파리들을 되돌려 주고도
- ㉣ ㉣ : 난 뭔가 진실한 걸 안 것 같습니다.
- ㉤ ㉤ : 나에게는 그게 유일한 자랑이 될겁니다.

발곡고등학교 (경기)

3. 다음 글에서 띄어쓰기가 틀린 부분을 갖고 그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침 운동으로 줄넘기를 시작한지 이틀째다. 줄넘기를 시작하면 오 분만에 숨이 찬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잘 안 된다. 그래도 한달 동안 꾸준히 해 볼 생각이다. 큰 욕심은 없다. 소녀시대 율야만큼 날씬해지고 싶을 뿐이다.

- ㉠ '시작한지'에서 '지'는 '동작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이라는 뜻의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 '오 분만'에서 '만'은 시간이 얼마간 계속되었다는 의미의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 '안 된다'는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는 동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 '한달'에서 '달'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 '율야만큼'에서 '만큼'은 '같은 정도나 한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발곡고등학교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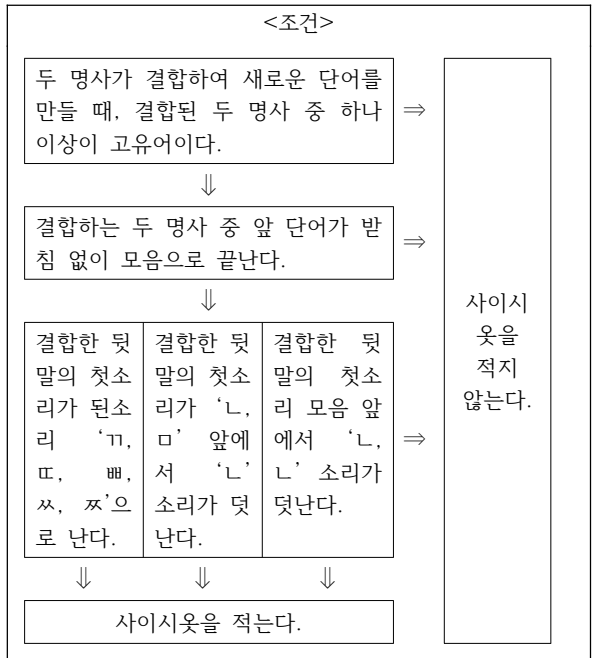
4. 다음 중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쓰지 않은 사람은?

강철 : 점심시간에 했던 풋살 경기는 어떻게 됐어?
 어준 : 12반이 이겼어. 전반전에는 삼 대 삼이었는데, 후반전에 12반이 한 골을 더 넣었지.
 아영 : 그런데 심판이 매우 편파적이었다고 하는데?
 순이 :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하지 않나?
 용민 : 내가 내일 학교에 가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볼게.

- ㉠ 강철
- ㉡ 어준
- ㉢ 아영
- ㉣ 순이
- ㉤ 용민

발곡고등학교 (경기)

5. <조건>을 참고하여 각 단어의 정확한 표기와 표기의 근거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 '뒷말'은 뒷말 '일'의 모음 'ㅣ'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 ㉡ '양치물'의 뒷말 '물'의 첫소리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 ㉢ '비소리'는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 ㉣ '국숫집'은 고유어 '국수'와 '집'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다.
- ㉤ '갯수'는 한자어 개(個)와 수(數)가 결합된 단어이므로 고유어가 아니지만 예외로 사이시옷 적는 것을 인정한다.

효문고등학교 (서울)

6. (가)를 바탕으로 (나)의 표현을 검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한글 맞춤법 제4장 제5절 제35항>
 [붙임2] ‘기’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새, 썼’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나)

<보기>

ㄱ. ‘햇볕 좀 쬐려고’는 고치지 않는다.
 ㄴ. ‘말도 안 되는’은 ‘말도 안 되는’으로 고친다.
 ㄷ. ‘타고 오면 돼’는 ‘타고 오면 되’로 고친다.
 ㄹ. ‘나중에 봐요’는 ‘나중에 봐요’로 고친다.
 ㅁ. ‘일 해야 돼’는 ‘일 해야 돼’로 고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효문고등학교 (서울)

7. ㉠~㉣에 대한 답변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발표 주제>
 올바른 띄어쓰기의 사용

<발표 내용>

1. <한글맞춤법 총칙 제2장>에 대한 설명
2. 햇갈리기 쉬운 띄어쓰기의 예시 설명

<발표를 들은 후 친구들이 질문한 내용>

- ㉠ : ‘어쩔수없었다’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가고 싶은 데가 있다’에서 ‘데’는 왜 띄어 쓰나요?
- ㉢ : ‘피아니스트마냥’에서 ‘마냥’을 앞에 말에 붙여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노력한 만큼’과 ‘나도 너만큼’에서 ‘만큼’의 띄어쓰기는 왜 다른가요?
- ㉤ : ‘어머니를 도와드린다’에서 ‘도와’와 ‘드린다’는 붙여 써야 하나요? 띄어 써야 하나요?

- ① ㉠ : ‘어쩔 수 없었다.’로 띄어 써야 합니다.
- ② ㉡ :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 ③ ㉢ : ‘마냥’은 조사이므로 앞의 말과 붙여 써야 합니다.
- ④ ㉣ : ‘노력한 만큼’의 ‘만큼’은 의존 명사이고 ‘나도 너만큼’의 ‘만큼’은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 ⑤ ㉤ : ‘드린다’는 ‘도와’에 결합한 보조 용언이므로 앞말과 붙여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효문고등학교 (서울)

8. 아래의 글에서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을 있는 대로 찾아 모두 바르게 고치시오. (단, 맞춤법에 맞는 표현을 고치면 감점)(맞춤법에 어긋난 부분과 바르게 고친 내용이 모두 맞아야 정답으로 인정)

친구는 건넌방에 있었다. 나는 숨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입을 막고 조용히 방에서 나와 계단으로 내려갔다. 아랫집은 텅 비어있었고 대문은 잠겨 있었다. 주변을 살살히 뒤졌지만 열쇠 같은 건 없었다. 달빛 아래 나무가지가 언뜻언뜻 보였고 깨끗이 정리된 건물 구석에는 찻간 불빛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빛이 어렴풋이 흔들리고 있었다. 불빛 근처에서 말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짹짹 자르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회전틀이 왜 이렇게 별로야?”

“그러게 얼른 이 지긋지긋한 셋방을 떠야하는데.”

순간 지금 이곳을 탈출하지 못하면 살아날 확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속으로 숫자를 3가지 세고 뛰어 나가기로 했다. 밤하늘의 달은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흥진고등학교 (경기)

9. <보기>에서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만 골라 묶은 것은?

<보기>

ㄱ. 달팽이는 더드미로 감각을 느낀다.
 ㄴ. 오늘 저녁에 우리 고깃집에서 만나자.
 ㄷ. 나는 김밥과 매운 떡볶이를 좋아한다.
 ㄹ. 학생들은 법석을 피우며 청소를 했다.
 ㅁ. 그녀는 씩씩한 맛이 나는 차를 좋아한다.
 ㅂ. 인형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ㅁ ④ ㄱ, ㄷ, ㅁ, ㅂ
 ⑤ ㄴ, ㄷ, ㄹ, ㅁ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비가’, ‘오니’, ‘핀다’는 소리 나는 대로 단어의 형태를 적은 것이다. 이처럼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에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 자연스럽다.

• ‘꽃이’, ‘꽃만’, ‘꽃도’를 [꼬치], [꼐만], [꼐또]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꽃[化]’을 ‘꽃’, ‘꼐’, ‘꼐’이라는 여러 형태로 적게 되어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독서의 능률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꽃’이라는 본래 형태를 고정하여 어법에 맞게 적으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나) 한자음 ‘녀, 뇨, 뉴, 니’나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두음 법칙에 따라 ‘여자(女子), 예의(禮儀)’처럼 적고, 그 외에는 ‘남녀(男女), 혼례(婚禮)’처럼 본음대로 적는다.

다만, ‘렬/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면 ‘열/율’로,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렬/률’로 적는다.

흥진고등학교 (경기)

10. (가)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그새 문이 닫힌 것이다.
 ㄴ. 이곳은 나무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ㄷ. 마음을 다**친** 사람에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

- ① ㄱ의 ‘닫힌’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군.
 ② ㄱ의 ‘닫힌’은 독서의 능률이 떨어지는 표기이군.
 ③ ㄴ의 ‘많-’은 뜻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표기이군.
 ④ ㄷ의 ‘다친’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군.
 ⑤ ㄱ의 ‘닫힌’과 ㄷ의 ‘다친’은 발음만으로는 의미를 구분할 수 없군.

흥진고등학교 (경기)

11. (나)를 참고할 때,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 ㉠ 진열(陳烈), 성공률(成功率)
 ㉡ 분열(分裂), 외형율(外形律)
 ㉢ 선렬(先烈), 내재율(內在律)
 ㉣ 확율(確率), 실패율(失敗率)
 ㉤ 규율(規律), 시청율(視聽率)

흥진고등학교 (경기)

12. <보기>에서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 3가지를 찾아 각각 바르게 고치시오. (단, 띄어쓰기 오류는 찾지 말 것.)

<보기>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다. 하지만 난 수학 공부를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백분률로 환산해서 적어야 하는데 정답을 모르겠다. 어떤 댓가를 바라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공부만 하려고 하면 다른 일을 하고 싶어질까? 이런 내 모습은 내가 봐도 안됐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공부보다는 역시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어야 해.

흥진고등학교 (경기)

13. <보기>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어(○)/머거(X), 놓아(○)/노코(X)

기 때문에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로 고쳐 써야 한다. (2) 청자에게 '좋은 하루'가 되라는 것은 어색하므로, '좋은 하루 보내세요.'로 고쳐 써야 한다. 31.③ 32.② 33.첫 번째 문장은 단순히 여우가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먹었다는 사실만을 전달하지만 두 번째 문장은 화자의 과거 회상을 통해 여우가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먹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동시에 여우가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먹었다는 사실을 화자가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되었음을 드러낸다. 34.② 35.④ 36.'잊혀진다'는 '잊-+-히-+-어지-+-다'로 이중 피동이므로 '잊힌다'로 고쳐 써야 한다. '생각되어진다'는 '생각+-되-+-어지-+-다'로 '-되다'와 '-어지다'가 쓰인 이중 피동이며, 주어 '나'가 생각하는 것이므로, '생각한다'로 고쳐 써야 한다. 37.⑤ 38.① 39.② 40.③ 41.④ 42.④ 43.① 44.③ 45.④ 46.① 47.② 48.② 49.② 50.④ 51.③ 52.② 53.㉞-영미는 자기가 곧 출발한다고 말했다. ㉞-그는 아버지께 자기도 가야 하냐고 물었다. 54.③ 55.⑤ 56.② 57.⑤ 58.④ 59.③ 60.⑤ 61.④ 62. 계시면→있으면, 할머니 생일→할머니 생신, 보러→뵈러, 할머니가→할머니께서, 좋아할→좋아하실 상품이세요→상품이에요.(상품입니다.), 3만 원이십니다→3만 원입니다 63.④ 64. 65.③ 66.피동사 '나뉘다'와 '-어지다'가 둘 다 사용되었다. 둘 중 하나만 사용하여 '나뉘니다'나 '나누어집니다'라고 해도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는데 이중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67.③ 68.보러가는데 → 뵈러가는데, 할머니가 → 할머니께서, 좋아할 것 →좋아하실 것, 3만원 이십니다 → 3만원입니다 69.①-시-, -였- ② -이

3-(1) 첫사랑

1.⑤ 2.③ 3.③ 4.첫사랑을 이름. 5.③ 6.⑤ 7.④ 8.① 9.④ 10.② 11.역설(모순), 아름다운 상처 12.③ 13.③ 14.③ 15.①④ 16.③ 17.③ 18.④ 19.② 20.③ 21.④ 22.④ 23.③ 24.② 25.⑤ 26.① 27.화자는 우물을 들여다 보며 미움의 정서를 느끼며 돌아가다 생각해 보니 자신이 가없어 지고 도로 가 들여다 보니 미워졌으며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니 그리워진다. 28.① 29.⑤ 30.② 31.역설법을 사용하여 첫사랑의 아픔을 겪고 난 후의 정신적 성숙과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드러냄. 32.④ 33.⑤ 34.③ 35.② 36.④

3-(2) 돌다리

1.⑤ 2.④ 3.⑤ 4.③ 5.④ 6.⑤ 7.③ 8.① 9.④ 10.⑤

11.③ 12.콩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13.② 14.① 15.창섭의 아버지는 근검으로 근방에 소문난 영감이다 16.㉞: 돌다리 ㉞: 나무다리 17.⑤ 18.② 19.③ 20.④ 21.② 22.③ 23.① 24.④ 25.② 26.① 27.⑤ 28.④ 29.② 30.② 31.④ 32.⑤ 33.① 34.④ 35.② 36.④ 37.④ 38.② 39.② 40.④ 41.③ 42.⑤ 43.② 44.② 45.① 46.㉞는 땅을 물질적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는 땅을 '천지만물의 근거'로 보고 있으므로 그의 관점에서 ㉞의 인식을 올바르지 않다.

3-(3) 성난 기계

1.⑤ 2.③ 3.④ 4.⑤ 5.① 6.① 7.④ 8.⑤ 9.④ 10.② 11.③ 12.③ 13.② 14.③ 15.③ 16.④ 17.④ 18.③ 19.⑤ 20.① 21.⑤ 22.기계가 노하셨네요 23.⑤ 24.④ 25.① 26.④ 27.속달우편 28.② 29.① 30.④

3-(4) 상기

1.② 2.④ 3.⑤ 4.④ 5.① 6.④ 7.② 8.② 9.④ 10.② 11.문답법, 모든 사물에 동일한 이치를 적용할 수 없음 12.④ 13.③ 14.확일적 이치로 만물을 바라보는 고정 관념에 대한 경계 15.③ 16.② 17.④ 18.② 19.④ 20.⑤ 21.② 22.② 23.⑤ 24.① 25.② 26.서술자가 사람들의 비판을 논리적으로 재반박함 27.③ 28.② 29.⑤ 30.③ 31.당대의 지배적 통념에서 벗어나는 사고방식을 보여줌.

4-(1) ① 음운의 변동

1.① 2.① 3.⑤ 4.③ 5.③ 6.③ 7.신고[신고], 선릉역[설릉역], 갔는데[간는데], 잘못[잘몸], 늦게[늦께], 도착했다[도차퀵따] 8. ⑤ 9.① 10.④ 11.② 12.㉞ [달근] ㉞ [다가페] 13.② 14.③ 15.③ 16.④ 17.㉞ 18.② 19.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20.③ 21.③ 22. ② 23. ④ 24. ⑤ 25.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음절의 끝소리 ㄷ, ㅌ이 형식 형태소 'ㅣ'나 반모음 'ㅣ'를 만나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26.③ 27.④ 28.⑤ 29.⑤ 30.(1) 타라, 모음 탈락 (2) 입학, 거센소리되기 31. (1) [침:낙] (2) 유음인 'ㄹ'이 (3) 비음 'ㅁ'의 뒤에서 (4) 비음 'ㄴ'으로 변하는 (5) 비음화 현상이다. 32.④ 33.① 34.④ 35.④ 36.② 37.⑤ 38.첨가 39.신고, 갑자기, 왔다 40.④ 41.② 42.④ 43.② 44.③ 45.① 46.⑤ 47.② 48.④ 49.① 50.② 51.② 52.③ 53.④ 54.③ 55.① 56.⑤ 57.① 58.⑤ 59.⑤ 60.⑤ 61.③ 62.④ 63.⑤

4-(1) ② 한글 맞춤법의 원리

1.① 2.④ 3.⑤ 4.③ 5.④ 6.② 7.⑤ 8.살살히→ 살살이, 나뭇가지→나뭇가지, 싹둑싹둑→ 싹둑싹둑, 회전룰→ 회전율, 좃점→ 초점 9.⑤ 10.② 11.① 12.백분룰→ 백분율, 댓가→ 대가, 썰어야→ 썰야(씨어야) 13.② 14.⑤ 15.③ 16.⑤ 17.④ 18.⑤ 19.(1)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2) ㉠ 빗물, 아랫마을 ㉡ 뒷일, 깻잎 20.④ 21.② 22.수만마리가→수 만마리가, 선룰→선율, 몹씨→몹시, 얇은 체→얇은 채, 안된다→안 된다. 23.④ 24.③ 25.③ 26.④ 27.① 28.(1)어름→얼음 (2)어간에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기 때문에 '얼음'으로 표기해야한다. 29.꺼져가는 불꽃처럼 사라질 것인가, 주사위를 한 번 더 던져 볼 것인가. 30. (1) 황금율→황금률: '렬/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면 '열/율'로,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렬/률'로 적는다. (2)우유빛→우윳빛: 합성어를 이룰 때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되면 사이시옷을 적는다. 31.(1)열일곱살, 수는 만 단위로 띄어 쓰며, '살'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2) 쓰는데, '-는데'는 연결어미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32.④ 33.① 34.⑤ 35.① 36.① 37.운동한√만큼√좋은√결과를√연기를√바랐지만√일등은커녕√꿀찌를√했다 38.1) 머거→ 먹어, 용언은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2) 여기에서 부터→ 여기에서부터,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39.⑤ 40.⑤ 41.④ 42.㉠누나의 해쓱한 모습에 어머니께서도 걱정이 되셨나봐. ㉡누나, 짹짹한 음식은 몸에 해로워. ㉢어머니의 정이 듬뿍 담긴 반찬을 먹고 힘을 내길 바라. 43.② 44.② 45.잇몸-(4), 대가-(6) 46.몽둥그려→몽똥그려:㉠, 씹슬한→씹쓸한:㉡ 47.④ 48.④ 49.③ 50.③ 51.② 52.③ 53.⑤ 54. (1)도라간다→돌아간다 (2)두 용언이 어울려 하나의 용언이 된 경우 앞말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55.② 56.⑤ 57.줄넘기를√시작한√지√이틀째인데√겨우√열√개를√할√뿐이다. 58.⑤ 59.① 60.③ 61.④ 62.③ 63.① 64. ㄱ. 되요→돼요 ㄴ. 뵈요→ 뵈요 ㄷ. 되요→돼요 ㄹ. 뵈요→뵈요 65.②

- 끝 -

총만국어
www.chongmangug.co.kr
기본 문제
오류 체크
자습서 파일
시험 대비 자료

1-(1) 자화상

1. ①

▶(가): 독백적 어조가 자아 성찰 및 태도 반성에 적합, (나): 지사적 어조가 나라를 위하는 강인한 태도에 적합.

② (가)는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기는 것이지, 비웃는 냉소적 태도는 아님. ③ (가)가 사색적 어조, (나)가 의지적 어조에 적합. ④ (나)는 세상을 싫어하고 모든 일을 어둡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염세적 태도라기 보단 강인한 의지를 갖고 부정적인 것을 이겨내려는 태도에 가까움. ⑤ (가)는 거리감을 두고 객관적으로 대상을 지켜보는 관조적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감정을 지닌 채 판단함.

▶어머, 이견 외워야 해!◀

- *지사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 몸을 바쳐 일하려는 뜻을 가진 사람과 같은 것.
- *냉소적: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기어 비웃는 것.
- *염세적: 세상을 싫어하고 모든 일을 어둡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
- *관조적: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것.

2. ⑤

▶<우물>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로 <①: 거울, ②: 돋보기, ③: 국화꽃, ④: 홍시>가 이에 해당함.

◆주제 저장소◆

- ① <거울>: 자아 분열 양상과 현대인의 불안 심리
- ③ <국화 옆에서>: 인고의 세월을 거쳐 도달한 생의 원숙미
- ④ <홍시를 보며>: 홍시를 통해 돌아본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 ⑤ <산유화>: 존재의 근원적 고독

3. ①

▶<빛 바람>이 <파아란 바람>처럼 촉각의 시각화로 되어 있음.

▶어머, 이견 외워야 해!◀

공감각 vs 복합 감각 (★★)

- ㄱ.공감각: 한 감각이 다른 감각 불러일으킴.
(주관적 심리 상태에 영향)
- ㄴ.복합 감각: 각각의 감각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음.

- *푸른(시각) 휘파람 소리(청각)
-원래의 청각이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킴 [공감각]
- *노란(시각) 빛깔의 달콤한(미각) 오렌지
-시각과 미각의 단순한 나열일 뿐 [복합 감각]

시 문제에서 <감각적 형상화>라는 말이 나오면, 위와 같은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4. ②

▶<관조적 태도>는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

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것이다. (나)는 부정적 현실을 강인한 의지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관조적 태도가 아님.

▶어머, 이견 외워야 해!◀

관조적 태도 (★★)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것으로 객관적 성격이 강하다. →대상에 대해 구체적이고 뚜렷한 주관적 심리(감정, 정서) 상태가 개입 되어 있으면 관조적 태도라고 보고 어려움

▶넣어둬, 패턴 공략◀

'차분히 보는 것', '~아는 것', '깨달음', '성찰', '반성'은 모두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5. ④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처럼 <소리 없는 아우성>도 역설적 표현에 해당.

▶어머, 이견 외워야 해!◀

반어법 vs 역설법 (★★★)

- ㄱ.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꼬)
- ㄴ.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 나를 보내지 않았다)

7. ④

▶일제라는 역사적 현실의 외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함. 나머지는 내재적 관점의 감상임.

▶넣어둬, 패턴 공략◀

자주 출제되는 선지 대립 양상

자연적 ↔ 인위적 / 객관적 ↔ 주관적 / 능동적 ↔ 수동적
내재적 ↔ 외재적 / 추상적 ↔ 구체적 / 이상 ↔ 현실

▶응, 헛갈리지 마!◀

행동 vs 행위

- *행동: 단순히 몸을 움직여 동작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
- *행위: 의식적·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

▶어머, 이견 외워야 해!◀

대비: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 대비라고 해서 반드시 반대의 맥락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두 대상 간의 차이점만 있어도 대비라고 볼 수 있다.

8. ⑤

▶'~습니다'라는 구어체를 사용하여 산문적으로 표현함.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상승 이미지 vs 하강 이미지 (★)

- *상승 이미지: 피어나는 꽃, 떠오르는 태양 등
→(열정, 희망, 활발 등 주로 긍정적)
- *하강 이미지: 내리는 비 혹은 눈, 떨어지는 낙엽 등
→(이별, 슬픔 등 주로 부정적)

2. 객관적 상관물 vs 감정 이입 (★★★)

ㄱ.객관적 상관물: 대상을 통해 (대상과 유사하거나 일치